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그리스도가 머리되신 교회를 통해 서로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도록 몸으로 헌신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심을 다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9월 10일 (토) 제 160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지령 1600호에 부쳐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문서선교지로 사명 다할 것

1982년 LA에서 시작된 기독교인 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령 1600호를 맞았다. 초기에는 한달에 한두 번, 혹은 격주로 발행하다가 1992년 본 발행인이 인수하고부터 주간 발행을 걸러본 적이 없다. 지난 34년 간 미주에서 한인 기독교인으로서 한 자리를 지켜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처음에는 미주에 속출하는 이단 대처는 기독교인들이 꼭 필요하다는 의지로 시작됐다. 그래서 창간자 김순명 목사는 이단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다. 본 발행인도 미주크리스천신문 인수 후 협박전화 등 힘든 일을 당하기도 했다.

이단대처는 정통 기독교인으로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기독교인으로서 더욱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본 발행인은 ‘이단’ 문제를 넘어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들에게 꼭 넓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신문의 사시를 바꾸고 보도 범위를 확대했다.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신학을 배우면 이단을 분별할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단은 힘을 못 쓰게 되고 결국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길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져 문서선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 성도들 뿐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또 선교사들에게 바른 목회와 바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전 세계를 돌며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를 매년 개최해왔다. 요즘은 목회자세미나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역별로 많이 열린다. 그러나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가 시작됐던 당시(1986년)에는 목회자세미나나 선교대회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 세미나는 보통 15-20명의 강사를 세워 한 장소에서 유명 강사들의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들을 기회를 제공했으며, 본 세미나는 그런 이점을 심분 활용해서 참가자들에게 육신적인 힘은 물론 영적 회복과 도전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더구나 세미나를 개최한 곳마다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 협력했기 때문에 지역교회의 교류와 연합의 활성화가 이뤄져 세미나를 개최한 후에는 감사하다는 치하를 받기도 했다. 또 지역 선교사들을 대거 초청했던 적도 있었는데, 참석한 선교사들이 ‘이런 대우

는 처음 받았다’며 감사하기도 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여러 기독교인들이 생겼다가 없어졌고 최근 10년 사이는 인터넷 언론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런 중에도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사시인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선교”를 고수하며 지면으로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초기부터 꾸준히 본지를 구독해온 독자들 중에는 이제 연로하여 하나님 앞에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눈이 어두워 더 이상 구독하지 못한다는 분도 있다. 또 인터넷 세상에 누가 종이 신문을 보겠느냐며 구독을 중단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도 미주크리스천신문은 발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점점 약해지고 기독교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절감하는 이 시대이지만, 어둠이 짙으면 빛이 더 빛나듯이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문서선교지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 시대적 사명에 동참해 주시는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은혜로운 설교, 따뜻한 교회가 좋다!

퓨리서치, 미국인 교회 선택 우선순위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직장 이전이나 이사로 새로운 환경에 처한 미국인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설교’와 따뜻한 ‘환영받는다는 느낌’이다.

퓨리서치 센터는 2014년에 35,000명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펼쳐 얻어낸 결과를 기초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결정하게 될 때, 최우선

적으로 ‘설교’를 찾고 그리고 목회자나 리더들에 의해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Choosing a New Church or House of Worship: Americans look for good sermons, warm welcome).

먼저 83%의 미국인들은 바로 설교의 질이 바로 교회를 결정하게 만드는 최우선 순위라고 응답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입장에서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충실한 응답을 한 것이다. 그리고 79%는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에 의해 따뜻한 환영을 받는 것이 교회를 결정하는

하고, 70%는 교회 멤버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응답했다. 한마디로, 직접 교회에 찾아가 그 분위기를 맛보고 나서 교회를 결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37%)는 결과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30대 미만의 청년의 경

‘설교의 질’ ...83%, ‘환영받는다는 느낌’ ...79% ‘예배스타일’, ‘위치’, ‘자녀교육’, ‘교회내 지인들&봉사할 기회’ 순서 인터넷 정보 37% 불과...30대 미만(59%)과 65세 이상(12%) 차이 커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외에도, ‘예배 스타일’(74%), ‘위치’(70%), ‘자녀 교육’(56%), ‘교회내 지인들’과 ‘봉사할 수 있는 기회’(48%) 순으로, 교회를 결정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참가한 응답자들이 좋은 설교, 교회의 환영 그리고 예배 스타일을 우선순위로 말한 것은, 아무리 SNS를 통해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이 고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루어지는 관계 형성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와 느낌이 아직까지는 새로운 교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후보 교회들을 검색해보고는 있으며, 85%는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가게 될 교회를 방문해 예배에 참석



우 온라인을 통해 교회를 찾는 비중이 59%를 넘어 65세 이상(12%)의 세대에 달한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를 찾는 것이 ‘쉬웠다’는 비율이 70%를 넘는 반면,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비율은 27%로 밝혀져 교회를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한편 미국 교인들이 새로운 교회를 찾는 비율은 전체 교인의 절반(49%)에 달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는 이사(34%)로 조사됐다. ‘이사’에 이어 새로운 교회를 찾는 요인으로는 ‘결혼, 또는 이혼’(11%), 목회자와의 불화(11%), 믿음의 변화(5%), 사회적 이유들(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다른 중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스케줄링(76%)은 설교의 질이나 예배 스타일보다는 위치를 선호한다. 즉 교구에 속한 지역 성당을 먼저 찾았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56%)일수록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 질을 먼저 생각한다. 어린 자녀일수록 그 수치는 높아진다(65%).

△중고교적 ‘넌스(Nones)’는 교회를 선정하는데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도 29%의 넌스는 때가 오면 그 순간에 교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5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6면

살롱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Matthew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일어나서 함께가자!

아가서 2:10

“RISE UP & COME TOGETHER”
—Song of Songs 2:10—



2016 PCIGA/GMI MISSION CONFERENCE

국제총회 GMI 세계선교대회

9.19(월)~22(목), 2016

장소 :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 개막식 및 선교사 간증의 시간: 9.19(월)~21(수), 오후 7:30(비전센터)
- 금요일특별집회: 9.23(금) 오후 7:30 현지 선교사 간증, 선교보고
- 선교부스 및 먹거리 장터: 9.20(화)~22(목), 오후 5:30~7:30(아외정원)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 음식과 현지 사역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의 시간)
- 주최: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합동 국제총회
- 주관: 은혜한인교회



시론

“시대와 문화를 구속하라(Redeem)”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먼저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지령 16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여전히 열악한 미주 교포사회와 이민교회의 현실, 특히 현대의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손쉬운 정보 검색 등으로 종이 신문의 필요성이 점점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령 1600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이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슈람(Schramm, W.)은 언론의 기능을 지식 공유, 사회화, 문화 창조, 여론 형성 등으로 설명한다. 이에 더해 정치학자 라스웰(Lasswell)은 시민사회의 감시를 추가했고, 라이트(Wright)는 문화 및 오락제공 기능 등을 더한다. 가장 먼저는 현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의 사실 보도와 정보제공 등을 통한 여론 형성 등을 꼽는다. 그러나 기독교 언론의 사명은 이러한 일반 언론의 기능과 사명에 더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궁극적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시대의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기독교 언론인들은 존 스토틀(John Stott)가 말한 대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의 의미를 새겨들어야 한다. 이 시대의 문화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읽어내고 해석하고 비평해야 하며, 복음적 대안으로 시대와 문화를 구속하는 사명이 기독교 언론인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긴 문화적 속성과 영적 의미들을 예언적 완료형(prophetic perfect tense)으로 치열하게 해석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언론은 듣기 좋은 소식만을 전해야 한다며 그릇된 방향으로 치닫는 현대 교회에 대한 건강한 쓴 소리와 감시, 견제를 포기하는 안일한 태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영적 암흑시대였던 사사 시대에 모두가 아는 자녀들의 죄악과 저주를 금하지 아니한 무능과 안일함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했던(삼상3:14) 엘리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사도 바울은 구속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롬12:1)고 분명하게 선언한다. 이 세대를 선도할 기독교 언론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속의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해석하고 복음적 정론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다루었던 기사를 예로 들어본다. 현재 미국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미 전역으로 확산된 동성애 문화와 관련한 미 대통령 선거이다. 미국과 같은 대의 민주정치제도 아래에서는 선거를 통해 미 정치와 정부 정책에 직, 간접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오바마 정부가 지난 7년간 미국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통과한 10여 개의 동성애 관련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앞으로의 미국의 미래가 올 11월 대선에 달려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새라 김(TVNG 설립자)의 정보 기사는 시의 적절한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분별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구체적인 자료들이다. 동성애자의 합법적인 권리처럼 실제로 친 엄마와 사랑에 빠진 아들과의 근친상간까지도 법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뉴멕시코의 어느 모자의 기사는 현재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현상임을 충분히 경고하고 있는 기사들이다. 내부적인 쓴 소리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스펙 쌓기 명분의 선교 여행 너무하다!”는 기사 역시 우리 내부 교발의 아픔이지만, 건강한 새 살 돌기 위한 건강한 정론지의 모습이다.

팀 켈러(Timothy J. Keller)는 그의 책, “거짓 신들의 세상”(Counterfeit Gods)에서, 오늘날의 우상들은 그 옛날의 석상이나, 목상으로 깎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극히 복잡한 개념으로 지적 범주와 심리적 범주, 사회적 범주, 문화적 범주, 정신적 범주를 모두 통합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낭만적인 사랑과 가족, 돈, 권력, 성취감, 특정한 사회 계층에 진입하고자 하는 욕구, 잠정적 의존의 대상이 되려는 욕구, 건강, 몸매, 외적인 아름다움과 같은 개인적인 우상들을 비롯하여 군사력, 기술적 진보, 경제적 번영 같은 문화적 우상들, 가족과 근면, 의무, 덕목과 같은 전통 사회의 우상들, 특히 개인의 자유, 자아의 발견, 개인의 부, 성취욕과 같은 서구 문화의 우상들, 이념이라고 하는 지적인 우상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의 “모든 이들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후10:5)고 선언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지령 1600호 발행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시대와 문화를 구속하는(redeeming) 정론지로서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

joehdj@yahoo.com

다시 불붙은 중동 냉전, 수니파 vs. 시아파 뉴스위크, “사우디-이란 중동패권다툼, 핵 문제까지 미칠 수 있다” 경고

1년 전 아메드 이브라힘 알-무가실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수속을 밟았다. 그때 몇 주 전 레바논에 몰래 들어왔던 외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그를 붙잡아 자신들의 수도로 데려갔다. 무가실은 지금까지 그곳에서 억류돼 있다. 그 요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보국 소속이었다. 무가실은 사우디의 시아파로 이란의 지원을 받아 사우디 왕가를 무너뜨리려는 극단주의 단체 사우디 헤즈볼라의 대원이다.

무가실의 체포는 사우디 당국이 거의 20년 전부터 버려던 일이었다. 무가실은 1996년 코바르 타위로 알려진 사우디의 미국 공군 숙소에 트럭을 이용해 폭탄 공격을 감행한 용의자로 지목받았다. 당시 테러로 미국인 19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부상했다. 무가실은 공격 후 곧바로 테헤란으로 도피했다. 지역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그 이후 이란과 헤즈볼라의 보호를 받으며 주로 베이루트에 머물렀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지난해 그의 체포는 21세기 중동을 규정할 사우디와 이란 사이의 깊어지는 냉전에서 또 다른 전선을 형성했다고 보도한다(TENSIONS BETWEEN SAUDIA ARABIA AND IRAN ESCALATE IN WAKE OF NUCLEAR DEAL).

중동 양대 강대국의 치열한 경쟁은 이슬람 내부의 격렬한 분열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우디는 중동에서 수니파 무슬림의 맹주를 자처하며 이란의 시아파 정권을 철천지원수로 생각한다. 현재 이란은 서방과의 핵협상 타결로 제재가 풀리면서 더욱 강해지는 상황이다. 사우디는 지난해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즉위하면서 여러 전선에서 이란과 대치하며 싸운다.

두 개의 대리전도 그 전선에 포함된다. 하나는 사우디와 국경을 맞댄 예멘에서 벌어진다. 예멘에선 정부군과 후티 반군의 내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사우디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지난 1월 사우디가 자국의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를 테러 혐의로 처형하자 이란 시위대가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 난입해 불을 질렀다

전체의 안보 균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판단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정권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행동을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사드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용서치 않고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뜻이었다. 사우디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는 무산됐다.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해도 오바마 대통령은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무기와 훈련으로 시리아 반군을 좀 더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행정부 내부의 견해도 일축했다. 더구나 시리아에서 이란의 ‘자산’을 염두에 뒀다 하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 모든 것이 사우디를 격분시켰다.

사우디의 살만 국왕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 타결을 위해 그전까지 이란을 적대시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결정을 내렸으며 지금도 이란이 핵합의를 포기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계속 강경하게 나가지 못한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수니파 아랍권 전체가 미국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중동 지역의 한 정보 관리자는 “살만 국왕은 오바마 대통령을 지

예멘은 성전주의(jihadism), 종파분쟁, 지역 불안정 온상 될 것 예측 사우디, “중동 지역 미군철수는 ‘평형상태’ 아닌 공백상태 조성” 주장

예멘의 정권을 잡지 못하게 막으려고 지난해 내전에 개입했다. 그 이래 내전은 계속 질질 끌려왔다. 후티 반군은 예멘 북부의 거점과 수도 사나에서 계속 버티는 중이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정책 연구소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중동 분석가 존 해너는 그런 대처로 예멘은 실패한 국가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예멘은 알카에다의 가장 무자비한 연계조직 중 하나인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의 거점으로 앞으로 성전주의(jihadism), 종파 분쟁, 지역 불안정의 온상이 될 것이다.”

사우디와 이란의 또 다른 대리전은 시리아에서 벌어진다. 지금까지 약 50만 명이 희생된 시리아 내전은 벌써 6년째로 접어들지만 전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내전에서 이란은 반군의 공격으로 궁지에 몰렸던 시리

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비호한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이란 정부가 아사드 정권에 무기와 전투 인력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란은 러시아와도 사실상의 동맹을 맺었다. 러시아는 시리아 반군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8월 16일부터 이란의 공군기지를 사용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란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서 전세가 역전돼 위태롭던 아사드 정권이 반군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그러나 사우디도 시리아의 수니파 반군 단체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며 만약 미국이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지지할 경우 지상군도 투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동의 정보 소식통은 사우디

가 시리아 반군 측에 무기를 대량 지원하면서 전략적 요충지 알레포를 탈환하려는 시리아 정부군이 발목이 잡힌 상태라고 전했다.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갈수록 삐걱거리는 와중에 시리아 내전은 더욱 치열해진다. 사우디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페르시아만 지역을 포함해 중동

곳곳하게 생각한다”며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하루빨리 퇴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사우디와 이란이 ‘평형상태’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사우디가 숙적인 이란과 중동의 패권을 나눠 갖는데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1986-2016 30th Anniversary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2016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도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산' 돼준다!

워싱턴포스트, 난민과 가정폭력 피해자위한 비상 공공쉼터 설립배경 소개

이집트 출신의 경영 컨설턴트인 암르 아라파(Amr Arafa)는 2016년 미국 대선 국면에서 주목을 받은 이민자와 무슬림을 둘러싼 정쟁에는 관심이 없다. 이민자들이 새로운 땅에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민자로서 아라파는 정치인이나 정부 기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거창한 슬로건보다는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머전시 비엔비'(EmergencyBnB)를 먼저 자신의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물론 무료로 대여되는 공간에서, 위기에 처한 난민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쉬고 간다.

워싱턴포스트는 아라파를 통해 시작된 이머전시 비엔비의 설립 배경을 보도한다(This man launched a website so people can invite refugees to stay in their homes)

아라파는 지난 한 해 동안 워싱턴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를 난민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머전시비엔비(EmergencyBnB)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낯선 이에게 집이나 방을 빌려준다는 점에서 에어비엔비와 같지만, 위기에 처한 손님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충분한 참가자가 모집될 때까지는 손님과 연결시키지 않을 생각이지만 아라파 씨는 곧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라파의 아파트에 머문 마지막 사람이 남긴 노트

2005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처음 미국 땅을 밟은 아라파 씨는 학위를 따고 자신의 회사를 차리면서 영주권을 얻었다. 이후 2015년, 헝가리 여성이 아이를 안고 달랠라는 시리아 난민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때라고 느꼈다. 그는 자신이 미국 영주권을 얻은 후, 느낀 안정감을 다른 이들에게도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엔비에 최저가 10달

리에 내놓고, 난민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만 손님으로 받겠다고 공지를 걸었다. 가장 먼저 연락을 해온 사람들은 텍사스에 살고 있는 시리아 출신의 커플이었다. 망명을 신청한 이들은 법원 심리에 출석하기 위해 워싱턴에 일주일 간 머물러야 했다. 마침 아라파 씨가 집을 비우는 날과 맞아 떨어져, 이들은 첫 손님이 됐다. 방값 10달러는 나중에 돌려주었다. 독립 기념일에는 한 여성이 폭력적인 동거인으로부터 피신해야 한다고 연락을 해왔다. 그는 경

찰 수사기록을 한 부 복사해 달라 요청해 받아본 후, 이 여성에게 아파트 키를 넘겨주었다. 그녀는 아라파의 방식이 양측 모두에게 리스크가 큰 일이라며, 처음에는 미심쩍게 생각했지만 세상에는 드물어도 선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곧 아라파는 너무 많은 손님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에어비엔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자신의 전공인 컴퓨터공학 지식을 활용해 독자적인 사이트를 만들었다. 여전히 에어

비엔비에도 아파트를 등록해둔 상태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집을 빌려주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미션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무료 숙소를 구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없다. 방을 빌려주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정도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는 특히 안전한 피신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는 숙박이 확정된 손님에게만 알려주고 있다.

지역의 난민 지원단체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공 쉼터나 피난처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집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정서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 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5년 10월 이후 미국에 들어온 난민은 6만3천 명이 넘는다. 이들을 위해 기계이 문을 열어줄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라파 씨의 과제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걸 알면 기분이 달라져요. 이런 일을 통해서 난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야망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 난민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 제공하는 40억 달러의 원조금 지원을 중지하고 자국민에게 관광이든 출장이든 불문하고 레바논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레바논이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와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의 각축전에서 이란 편을 든 것에 대한 사우디의 보복 조치였다.

헤너를 비롯한 중동 전문 분석가들은 최근 이란의 소수민족 사이에서 발생한 소요의 배후가 사우디 왕가라고 믿는다. 쿠르드족 반군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교전을 벌였고 아랍계 소수민족이 최근의 이란 원유 파이프라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헤너 분석가에 따르면 사우디의 분노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나간 아랍연맹 회원국은 레바논뿐이었다. 그러자 사우디는 레바논의 군과 치안부대

에 제공되는 40억 달러의 원조금 지원을 중지하고 자국민에게 관광이든 출장이든 불문하고 레바논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레바논이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와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의 각축전에서 이란 편을 든 것에 대한 사우디의 보복 조치였다.

(13면으로 계속)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중신교회 원로)

목회와 회의(하)

2) 서두르지 않는다

인생이 마라톤인 것처럼 세월도 길고 길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 당장 가결되어야 하고 내일 실현되어야 하는 것처럼 과정이나 결과를 서두르다가 좌초하는 경우가 많다. 서두르면 느려지고 기다리면 빨리 가는 것이 목회다.

조급증 환자는 자기 뜻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밥집을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 과격으로 삼는다. 솔직히 말하면 목회나 회의는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뜻대로 되었을 때 개선가를 노래하거나 패자를 부를 필요도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자학할 필요가 없다.

“천천히 확실하게”는 필자의 좌우명이다. 필자의 타고난 성격은 예민하고 조급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목회자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성격과 태도 교정을 위해 노력했다. 서두름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평생 목회를 통해 깨낸 보화다.

3) 결과의 승복한다

내 계획이나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목회를 위해 승복해야 한다. 목사도 당회원도 그래야 한다. 결과를 두고 누구를 탓한다든지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 든다든지 시시비비를 가리려 드는 것은 장기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회란 뒷말이 무성할수록 흔들리는 곳이다. 귀에 대고 소곤거린 말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전이되고 확산된다. 그래서 목사는 입조심, 말조심에 주의가 기울여야 한다.

모 교회 K목사는 한 주일이 지나면 지난주에 있었던 회의 결과를 뒤집고 반복하기를 되풀이했다. 뒤집는 이유는 ‘기도해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계시가 임했다’였다. 그러나 당회원들은 사모님의 기도와 계시가 목사님의 반복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고 심각한 갈등으로 변질 일이 있었다.

필자의 경우는 논의와 결과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더라도 다음 날 뒤집는 일을 피했다. 일단 결과를 결과로 인정할 때까지 질서가 깨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화하라, 소통하라

독재자에게 회의는 무의미하다. 교회 공동체는 균열이나 황제의 독단으로 굴러가는 수레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가 존재한다. 장로교의 경우는 의결기구나 제직회, 당회, 공동의회로 구성된다. 의결 현장에서 대화와 소통을 꾀하는 것은 때가 늦다. 대화와 소통은 평소 생활 속에서 성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신뢰와 위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평소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면 먼저 목회자의 마음이 열려야 한다. 대화는 단절된 목회는 불통 목회다.

“나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한다”, “나는 사람의 낯을 살피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기울인다”, “나는 사람의 소리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불통 목회를 고수하다 보면 여기저기 혈전이 막히고 순환장애가 일어난다.

목회는 하나님이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위임이지 내가 만든 비즈니스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내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목회의 대상도 아니다. 목회 대상은 위임된 교인들이다. 그들을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그들의 삶 속을 드나들고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얘기하고 소통해야 한다.

소통의 첫 단추는 듣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보면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상대에겐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자기 말로 시공을 채우는 사람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만나 대화하기가 어렵다.

필자는 듣기를 노력하고 훈련했다. 어불성설이라도 들어주고 유치한 말도 경청했다. 그 사람의 눈과 입을 바라보며 중도에 그의 말을 가로채거나 면박을 주지 않았다. 개인상담의 경우 역시 내담자의 말을 인내로 들어줄 때 성립된다.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이 회의를 주재하거나 참여하게 된다. 싫든 좋든 회의는 피할 수 없다. 긍정적인 회의를 교회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동인이 될 것이고,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회의는 교회공동체를 물론 개개인의 신앙을 교란할 것이다.

회의는 재미없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 회의는 길수록 비능률적이고 짧을수록 생산적이다.

행복한 교회의 비전이 회의 때문에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iamcspark@hanmail.net

다시 불붙은 중동 냉전, 수니파 vs. 시아파

(2면에서 계속)

사우디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철수함으로써 ‘평형 상태’가 이뤄진 게 아니라 오히려 공백이 생겨 이란이 끼어들 여지가 생겼다.

중동 지역의 정보통은 “살만 국왕은 이란이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가 여러 전선에서 이란과 대치하는 것도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

FDD의 헤너 분석가에 따르면 서방의 제재가 풀리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이 다시 가능해지자 사우디는 석유를 주된 경제 무기로 사용해 최대한 이란

이 석유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견제했다. 공급 과잉과 장기적인 저유가에도 사우디는 유가를 올리기 위한 생산량 감축 촉구를 일축해왔다. 오는 9월 하순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는 알제리 수도 알제에 모여 산유량 동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계 3위의 산유국인 러시아가 이란과 손잡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거기에 장단을 맞춰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페르시아만 지역의 한 외교관은 “사우디는 러시아와 이란의 수익에 타격을 주기 위해 저유가 상황을 더 오래 끌고 갈 생각인 듯하다”고 말했다. “사

우디는 벌써 2년째 그 무기를 사용한다.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사우디는 이란을 따돌리기 위해 외교적으로도 공세를 취했다. 지난 1월 사우디 정부는 이란의 경고를 일축하고 자국의 저명한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했다. 그러자 이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과 영사관이 폭도의 공격으로 불났다. 사우디는 곧바로 이란과 외교를 단절하고 아랍연맹의 회원국들도 이란과의 관계를 격하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헤너 분석가에 따르면 사우디의 분노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나간 아랍연맹 회원국은 레바논뿐이었다. 그러자 사우디는 레바논의 군과 치안부대

에 제공하는 40억 달러의 원조금 지원을 중지하고 자국민에게 관광이든 출장이든 불문하고 레바논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레바논이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와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의 각축전에서 이란 편을 든 것에 대한 사우디의 보복 조치였다.

헤너를 비롯한 중동 전문 분석가들은 최근 이란의 소수민족 사이에서 발생한 소요의 배후가 사우디 왕가라고 믿는다. 쿠르드족 반군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교전을 벌였고 아랍계 소수민족이 최근의 이란 원유 파이프라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13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장 영춘 박사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불신자와의 관계

인생에 있어서 이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거미줄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자라고 해서 신자들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사는 한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과도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불신자들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하나 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려면 불신자들과 분리해서 살아야

한다. 아예, 안 만나고 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불신자와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불신자들을 사탄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고대 유대인들도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소시계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울 만치 불신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찾아가라고도 하셨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무슨 말씀인가? 땅 끝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가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네가 알고 있는 신앙의 비

밀을 말해주라는 것이다. 너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만 소금이니 빛이니 하지 말고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들이 인정해 줄 만큼 불신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다. 70명의 지지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어디로 보내셨는지 아는가? 바로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의 집으로 보내셨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우리같이 좀 오래 믿은 교인들을 보면 신자들끼리는 친숙해져 있다. 어느 모임에서도 ‘오해 은혜 받았어!’ 그러면 ‘아멘’하고 신앙적인 용어도 착작 잘도 주고 받는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만나면 왠지 어색하고 몸이 꼬이고 심지어 거부감까지 느끼게 된다. 몇 년 전에 한국에 나갔다가 50년 전에 헤어진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저를 알아보고는 제 이름을 불러가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반갑게 인사는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웬 일인지 친구들인데도 어색함을 느꼈다. 그런데 교인들과 항상 정중하게 존댓말만 하다가 갑자기 반말하는 것이 어색해서인 것만은 아니었다. 돌아오면서 어색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보았는데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 가운데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제게 있어서 친구들인데도 그렇게 어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인은 교인끼리의 관계에서도 성공해야 하고 내 주위의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이고 따라서 신자가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홀로 우리 각자를 믿게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이 불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 성경은 우리 교인들이 불신자와의 어떻게 관계

를 맺어야 하는지 또 그 관계에서 무엇인지 중요한지를 설명해준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너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했다.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먼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다. 믿는 사람이라도 선을 행하다가 고생할 수도 있겠지만 악한 일을 하다가 고생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번은 어느 집사님 가게를 예고 없이 심방을 갔다. 그런데 Wrong time Wrong place였다. 막 얼굴이 마주쳤는데 그때 막 담배를 입에 물고 빨아드릴 때였다. 그런데 갑자기 담임목사님이 나타나니가 영결결에 그걸 그냥 입에 집어넣었다. 당연히 입안을 데웠다. 그 순간 얼굴이 노래지고 야단이였다. 심방을 끝내고 돌아오는 차속에서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왜 목사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그럴까? 자기가 교인인 것을 다 알고

있는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제멋대로 행하면서 왜 목사 앞에서는 그럴까? 불신자에게 잘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말이다. 불신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영원히 실족하게 되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보고서 예수 믿어 봐도 별수 없더라 하면서 불신자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대단히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사도바울도 만일 내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만큼 ‘나와 불신자와의 관계’ 불신자가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를 가로막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다. 교인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교인인 나를 통해서 천국과 주님을 보고 교인인 나를 통해서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있는 그 불신자를 의식하면서 그 눈앞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란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 / 른 / 초 / 장

박경호 목사
(엘바인침례교회 담임)



‘OT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중문화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이 단어는 좌절에 빠져서 엎드려 있는 사람의 옆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좌절은 ‘마음이 꺾이고 꺾인 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좌절이 찾아오면 마치 감옥에 갇힌 듯 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나와 새롭게 기적의 인생을 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2절 말씀에는 좌절에 빠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년 간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교회의 리더 중 하나였던 스테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핍박 때문에 수많은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팔레스틴 지역을 강타한 지독한 흉년과 가뭄에도 시달려야 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환란과 가혹한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그 핍박의 중심에 헤롯왕이 있었

습니다. 로마황제가 파견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은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포퓰리즘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인 야고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유대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신이 난 헤롯은 더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잡아들였습니다. 베드로의 사형 집행 전날, 다음날 아침이면 베드로의 목이 날아가는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이 좌절의 감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얻매고 있던 불가능의 최장사를 끝

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원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만 세 번째로 감옥에 갇혔는데, 전에도 그는 간수가 있고 감옥 문도 잠겨 있는 가운데 감옥을 유유히 탈출했었습니다(행5:17-23). 그러자 헤롯은 베드로를 더욱 철저히 지키기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명씩 네 개조로 나뉜 도합 열 여섯 명의 군인들이 감옥 안과 밖에서 베드로를 쇠사슬에 묶어 지키는 상황이었습니. 헤롯은 이렇게 베드로의 침수를 위한 완벽한 준비를 끝내놓고 이제 내일이면 유대인들에게 또한번의 인기를 얻게 될

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동시에 무한하신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절망에서 벗어나 주님의 기이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영적원리 두 번째는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으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하는 행위인 기도는 모든 기적의 출발입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기적의 시작부터 끝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OTL’을 다시 자세히 보면, 좌절하는 모습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좌절과 기도는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좌절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마지막 영적원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좌절의 결과로 생기는 몇가지 반응 중 그 대표적인 것이 공격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나를 도와줄 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때로는 이 감정이 우울증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베드로는 혼자였지만, 영의 눈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행12:17), 주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동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고 차디찬 감옥에서조차도 자신과 함께 계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9면으로 계속)

“좌절의 감옥을 뛰어넘어”

(사도행전 12장 1-12절)

고 차디찬 좌절의 감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감옥에서 탈출하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떻게 하면 인생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절망과 좌절을 뛰어넘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완벽이란 없습니다. 완벽이란 무한하신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마치 외출하듯 일어나서 옷 입고 신 신고 첫째 문, 둘째 문을 지나 시내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더욱이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묵묵히 받아들였

까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의 감옥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한 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그들은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도에도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에도 신실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이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진 것입니다.

부목사 청빙

뉴욕만나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부목사(1인)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자격요건

- 1) KAPC(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단에 가입된 분 또는 가입 가능한 분 (KAPC 교단에서 정하는 신학대학원 졸업한 분)
- 2) 개혁주의(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분
- 3) 교회 행사, 행정 및 교육 등에 경험이 있는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가족사진 제출)
- 2) 자기 소개서(사역 계획 내용 포함)
- 3) 목사 안수 증명서
- 4)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 5) 최근 설교 1편(CD 또는 DVD)
- 6) 추천서 1통

제출기간

마감: 2016년 10월 31일(월)

제출 및 문의(이메일 또는 우편)

- 1) 경관호 목사 / 이메일 kwanhochung@hotmail.com
- 2) 우편 제출 / Pastor Kwan Ho Chung
26-06 163 St. Flushing, NY 11358
- 3) 문의 전화 (917)750-817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만나교회

170-0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 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배움의 두 가지 길
수업을 배우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군대식으로 일단 몰아 넣어보는 것이다. 그러면 살기위해서라도 물을 덜 먹기 위해서라도 본능적인 개해업을 치면서 배우는 것이다. 주로 시골출신들이 이런 영법에 특별하다. 얼마나 물을 튀기고 요란한지 옆에 사람들이 가지를 못한다. 그렇게 멋있어 보이거나 즐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생존의 몸부림과 같은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미리 책을 보고, 교습을 받아서 곧장 물에 들어가고 싶지만 준비운동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물을 즐길 수 있고 실력은 날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은혜로 된다는 것이 세상운동과는 확연히 다르겠지만,

익히고 성장해야 단단해지는데 기본기가 잘못된 상태에서는 하면 할수록 부상과 경기의 패배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정 선수의 기본기를 수정하고 훈련했을 때의 발전적인 성장내용을 증명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바른 은혜-깊은 은혜
신앙에도 기본이 중요하다. 가장 큰 기본은 구원의 감격과 은총이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다. 이러한 기본기위에 신앙의 복된 집을 짓고자 한다면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순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워서 남주지 않는다. 배우면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말을 학교공부만이 아닌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하는 것이다. 들어가야 하고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 어느 한순간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순간 한방에 훅 갈 수도 있기

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의 빈익빈 부익부
인생의 이런 감정 우선적인 본성 때문이라도, 말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과 배움이 중요하다. 그러나 목회현장은 말씀 배움에 있어서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함을 보게 된다. 말씀의 복을 누릴 기회를 스스로 걷어내고 있는 것이다. 말씀과 순종이 온전히 믿음의 길을 안내하고, 신앙성숙의 단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인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귀 막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음을 본다.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목회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음성으로 듣지 못할 때, 이를 인터넷과 같은 다른 통로를 통해 공급받게 될 때, 귀는 복을 받아 놓아 질지 몰라도, 그 영혼이 복 받는 자

말씀은 그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더불어 순종하기위해 듣는 말씀이어야 함에도, 온전한 예배 없이 필요한 지식의 섭취로서의 말씀 들음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치 모래위에 지은 집처럼 비바람불면 공동체에 뿌리내리지 못한 말씀은 형편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증명과 변증을 요구한다. 자신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주면 믿어줄게'라는 입장이다. 신에 대한 영역을 자기 머리 밑으로 제한하려는 것인데, 결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말씀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신앙생활도 예수 자체를 알도록 애쓰기 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는 늘 예수 믿는 사람의 실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주일마다 가르치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비판하시는데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의견이 분분한 장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이 달라집니다. 계시록 20장이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별개의 사건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천년설에는 주로 3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이 있습니다. 이 학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학설로 복음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후천년설은 이 세상이 복음전파와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차 이 세상이 기독교화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회는 새로워지며 과학의 발달로 사람의 생활이 편리해지며 구약의 예언한 왕국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설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많이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둘째는 전천년설(premillennialism)입니다. 이 학설은 이 땅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마귀를 무지개에 가둔 후에 무죄사대인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땅에서 자식을 낳는 번식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받아 천년간 왕 노릇하다가 영원세계에 들어간다는 학설입니다.

예수님 공중재림(성도 휴거)→7년 대환난→천년간 왕노릇(예루살렘 제3성전서 동물제사)

다. 이 전천년설도 2가지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1)세대주의적 전천년설(Dispensationalism): 이 학설은 과거 부흥사들이나 한국의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많이 가르쳤던 학설인데 이 사상에 따르면 7년 대환난 이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고 휴거되며 공중에서 7년간 주님과 함께 있다가 환난이 지난 후에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간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간 왕노릇 하는 천년왕국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시대이기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세계 제일가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국이 최강국이지만 천년왕국이 오면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국이 되며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현재의 무슬림 황금시원을 헐고 그 자리에 제 3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에서 동물제사를 다시 드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2)역사적 전천년설(Historical Premillennialism): 이 학설은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믿어왔던 천년왕국설인데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이 재림하시어 이 땅에 예덴과 같은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영원한 세상이 온다는 학설입니다.

셋째는 무천년설입니다(Amillennialism): 무천년설은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기에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현재 영적으로 주님과 왕노릇 하는 지금이 영적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없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기간은 현재의 이 은혜시대가 바로 영적 천년왕국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한 교수들을 통해 이 학설이 한국교회에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어거스틴과 칼빈 등이 이 학설을 지지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바른 은혜, 깊은 은혜는 배움과 순종을 요구

가르침을 따라 차근차근 배우고 익히고 순복함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처음부터 요란하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신앙의 재미에 깊이 빠져들음을 본다. 반면에 처음부터 불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작한 분들은 열정과 함께 기복도 함께 심한 것을 본다.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같이 시작되지만 배움과 순종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더 부요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은혜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서 깊어지는 바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은혜, 깊은 은혜는 반드시 배움과 순종의 과정을 요구한다.

리에 이르기에는 요원한 일이 되는 것이다. 예전에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서 모유를 사고파는 일명 '동남정'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 흡수에 좋은 모유를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해 아이에게 먹이는 일들이 얼마들에게서 성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올라온 모유 가운데에는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에게는 한층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와 연약함을 자신의 신앙의 깊은 진보를 제한하는 핑계 거리로 삼는 것을 본다. 결국, 간절한 배움과 순종이 생략된 신앙의 여정은 그 열매가 마치 나뭇잎만 무성한 돌베나무 같아서, 열매의 단맛을 보지 못하는 지루한 신앙여정이 기다릴 뿐이다.

한화-김성근 감독
한국 프로야구 팀 중에서 한화 이글스라는 만년 꼴찌하는 팀이 있다. 그래서 한화라는 팀명을 '화나'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기를 보고 있자면 화가 난다는 말이다. 이런 팀을 은퇴할 나이가 넘어 감독을 맡은 분이 있는데, 김성근 씨라는 분이이다. 그의 감독부임 후 한화는 팬들을 '화나게 하는 팀이 아니라 '마리화나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중독성 있는 경기를 하게 되었다.

감정우선 세상과 은혜 누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이 30%, 감정의 영향이 70%를 차지한다고 한다. 사람은 아는 데로 배운 대로 살아가기보다,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가는 존재에 더 가깝다는 말이다. 즉,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서, 기분 나빠서 안하는 게 훨씬 더 많다. 특별히 한국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분 나쁘고 속하면 천국도 안가겠다고 배짱부린다고 하지 않는가?

인생의 연약함과 은혜의 당당함
최근 장로 기업가와 시장출신의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이들의 자살기사가 났다. 유서를 남겨주거나 쓰는 동안에 과연 그가 평생을 믿고 의뢰한 주님은 그 연약한 마음을 볼 수 없었던 말인가? 하나님을 원망함이 아니다. 인생의 한 없이 연약함이 마음에 아픈 것이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을 터인데 세상에 직면한 그 문제를 앞에 당당하게 설 수는 없었을까를 생각한다. 문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도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흔히 그렇게 말한다. 누가 와도, 누구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 말은 불신앙적인 용어임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너무 구조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이르게 한다.

최근 이 팀에 대해 선수혹사 논란이 일게 되었다. 예전과 다른 선수운용방식으로 부상선수가 속출한다고 그를 분별력 없는 감독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명쾌한 논리로 문제를 설명했다. 그의 말인 즉, 운동선수에게 있어 기본기가 되고 그 위에 실전기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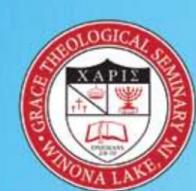
그러나 복된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기본이나 감정의 요인보다는 말씀에 대한 앎과 신앙의 고백 그리고 결단과 통해서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가야하니가 가는 것이고, 옳으니까 자기를 행복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자기행복이며 자기포기와 자기부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에도 동남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와 기독교 텔레비전 등을 기웃거리고 거기서 마구잡이로 설교를 선택하거나 다운 받아 듣는 설교동남정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남정 설교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내의 교인들, 특히 초신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파하는 동남정 설교 돌리기마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동남정으로 자란 교회들은 그 믿음이 뒷심이 하릴없이 무너짐은 예견된 일이 아닐까?

간절한 배움과 순종

<7면으로 계속>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On Campus Courses

2016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19-23(9월 19 -23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s(세계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Sept 26-30(9월 26 -30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Oct 3-7 (10월 3-7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베트남의 하니(Hani)



베트남에 하니족은 32,400명 정도이며, 이들은 중국과 관련이 있다. 그들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조상은 중국 북부의 평원에서 멀리 남쪽으로 이주해왔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니족이 티벳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

닌 나라다. 한 왕조 시대에는 중국에 의해 정복되었으며, 1000년 동안 외국의 통치 아래 있었다. 19세기에 베트남은 다시 정복당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였다. 2차 대전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게릴라들은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싸웠으며, 1954년 베트남은 공산주의 북 베트남과 비공산주의 남 베트남으로 나뉘게 됐다. 이후 20년 동안 싸웠는데 이것이 베트남전이었다. 베트남전 이후 정부는 불행하게도 나라를 사회주의로 이끌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들, 대외정책의 문제들, 중국과의 긴장은 심각한 결핍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나라의 지도자들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하니족들은 단순한 벽토 가옥에서 생활하며, 그들의 작고 혼잡한 촌락은 50-60가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은 산과 고개 비탈에 숨겨 있게 계단식 논을 만들어 수로와 독을 사용하여 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다. 그들은 농사에 다양한 종류의 곡괭이, 제초기, 삽, 풀소 쟁기, 경운기 등을 사용한다. 비료, 특별히 소똥이 농사에 사용된다. 소 사육 또한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일부 하니족은 아직도 화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농부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집단을 형성하며, 몇몇 가족들이 한 집단을 형성해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산다.

대부분의 하니 가족들은 부계혈통이며, 이것은 조상의 끈이 아버지를 통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 혹은 말형이 가족의 우두머리이며 모든 결정을 내린다. 2-4가족이 모여 씨족을 이룬다. 각 씨족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성(patronymic, 보통 아버지나 조상에 유래한 이름)을 갖는다. 젊은 하니 남자와 여자들은 그들의 결혼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되나,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결혼 의식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집에서 3-4년 동안 사는 것은 통례이다. 하니족은 고리버들 세공, 면 짜는 것, 염색과 같은 수공업에 종사한다. 그들의 민족 예술과 문학 역시 상당히 발달돼 있다. 민족실화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적인 이야기들과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

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하니족의 많은 이들은 결혼과 다른 관습들에 대한 것이다. 신앙 베트남의 많은 다른 소수종족들과 마찬가지로 하니족도 민족종교 종교관습을 행하고 있다. 하니족 촌락 대부분에는 다수의 신을 숭배하는 사원들이 있다. 이러한 신들은 지구, 물, 불, 유명한 조상들과 연관돼 있다. 같은 가족 내의 형제들이 만형의 집에 모여 죽은 그들의 부모를 예배하는 것 또한 일반적이다. 음력설 전날밤(음력 12월 31일)에 아이들은 그들의 죽은 조상과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조상을 예배하는 것 외에도 하니족은 시부모 및 장인장모의 영혼 또한 숭배한다. 해마다 음력 2월이면 마을에서 큰 제사의식을

가진다. 그곳에서 그들은 영혼들에게 건강, 농사의 번영, 소 사육에서의 성공 등을 빈다. 쌀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우뢰신"과 "바람신"을 숭배한다. 농사철에는 많은 의식들과 의례들이 신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행해진다. 필요로 하는 것들 베트남은 빠른 인구성장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사회적 서비스와 식량 공급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인구공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인구밀도가 적은 산악지방이나 고산지역에 정착시켰다. 성경과 다른 기독교 자료들이 아직 하니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현재 베트남에 있는 하니족의 5%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나이지리아 급진 무슬림들, 크리스천 학생 집단 폭행

나이지리아에서 급진적인 무슬림들이 크리스천 학생을 참혹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뉴스미션에 따르면 국제 기독교 수호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CC)'은 "이번 사건은 잠파라 주의 한 대학에서 크리스천과 무슬림 학생간의 연쟁이 폭력으로 번지며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무슬림들은 크리스천 학생이 이슬람교의 선지자 무하마드를 모욕했다며 신성모독을 이유로 크리스천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주변 학생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대학 외에도 급진 무슬림에 의한 폭력이 일어난 학교는 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조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잠파라 지역 주교 존 단비타는 "이번 사건이 확인된 후 보안을 강화했다. 이 사건 외에 급진주의 무슬림들이 성당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예배당에 불을 질러 8명이 숨진 사건도 일어났다"며 "보안 강화가 늦었다면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는 크리스천과 무슬림 인구가 각각 절반을 차지해 두 종교집단 간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의 희생자는 지난 4월 무슬림 범죄 조직원 4명에게 살해된 목사의 경우처럼 기독교 목회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또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하람 같은 테러단체도 크리스천의 생명을 위협한다. 2016년 들어 나이지리아 내 크리스천 희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나이지리아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마스 선교사 기념, 웨일즈서 '영-한 연합기도회'

미국상선 제너럴서먼호에 승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영국의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1839-1866·사진) 선교사. 그의 영향으로 목회자가 된 가정의 4대손이 토마스 선교사의 고향을 방문해 영국교회 재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한별(서울 대치순복음교회) 목사는 1일 강남구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양대부흥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서 비롯됐다"며 "영국교회에 감사하기 위해 오는 12-16일 영국 웨일즈에서 '토마스 선교사 한국 선교 150주년 영국-한국 연합기도성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평양대부흥의 현장에서 목회한 김홍식 평양 강서감리교회 목사의 4대 외손이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하기 전 최치량 등 4명에게 성경을 전했다. 이 성경은 박영식에게 전달됐고 평양대부흥의 근원지인 장대현교회가 될 집의 벽지도 사용됐다.

대치순복음교회 성도들은 현지 14개 교회를 방문, 영국교회의 재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15일에는 카디프시의 세인트 데이비드홀에서 연합성회를 갖는다. 대치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인 '킹스 콰이어'와 사우스웨일즈 침례회창단인 '캠브레니스 콰이어', 웨일즈 지역 찬양단 '사운드 오브 웨일즈'가 함께 찬양한다. 영국 오순절교단 임원을 역임한 로이 루이스 목사와 카디프 시장, 시의회 의장도 참석한다. 현재까지 데이비드 홀 전체 1600여석 가운데 1500여석이 예약됐으며 한국에서도 100여명이 참가한다고 교회는 설명했다.

한 목사는 "토마스 선교사가 평신도였던 것처럼 이번 일정은 모두 평신도들이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한국과 영국교회의 재부흥을 위해 평신도를 사용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회가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로 가는 징검다리 가 될 바란다"면서 "오는 11월 영국의 목회자 및 신학자들이 답방 형식으로 한국을 찾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가 함께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민 절반 이상 "착한 사마리아인법 제정 찬성"

한국 국민 2명중 1명은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3.8%로, '위급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제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39.1%)보다 14.7%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7.1%.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법제화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 특히 60대 이상(찬성 62.9% vs 반대 24.9%)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55.3% vs 41.7%), 50대(55.2% vs 39.8%)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한편 30대(찬성 46.1% vs 반대 47.9%)와 20대(46.0% vs 45.4%)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가정주부(찬성 56.6% vs 반대 36.7%)에서 '법제화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영업(54.7% vs 36.5%), 사무직(51.7% vs 45.4%), 학생(48.0% vs 42.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동직(찬성 49.4% vs 반대 47.7%)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법제화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 특히 대전·충청·세종(찬성 59.2% vs 반대 36.9%)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경북(54.8% vs 33.3%), 수도권(54.3% vs 39.5%), 부산·경남·울산(49.5% vs 44.5%), 광주·전라(47.5% vs 41.3%)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62.5% vs 반대 36.3%)에서 '법제화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어 중도층(53.4% vs 43.1%), 보수층(56.3% vs 4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8월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앱(SPA)과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무선전화(75%)와 유선전화(25%) 방식의 의견조사(RDD)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표집했다. 통계보정은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고, 응답률은 8.4%(총통화 6,212명 중 524명이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UNDP, 대북 지원 활동 내년 잠정 중단

유엔 개발 계획(UNDP)이 올해를 끝으로 내년 대북지원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유엔 기구들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일 "오는 6월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 유엔프로젝트서비스국 운영이사회'의 2016년 후반기 정기이사회 심의 안건에 UNDP의 대북지원 활동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UNDP는 운영이사회에 올해 12월 31부로 종료 예정인 '북한국가프로그램'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국가프로그램은 지난해 말 종료된 2011-2015년 주기의 프로그램이 1년 연장된 것으로 재연장 또는 새로운 운영주기를 신청하려면 운영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UNDP가 프로그램의 연장 및 새 주기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다음 기회는 내년 초 예정된 운영이사회의 2017년 상반기 정기이사회다. 하지만 만일 회의에서 이사회 중 의제제가 이뤄지는 경우 등 변수가 발생하면 9월에 열릴 후반기 정기이사회에서 재심의 될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향후 1년 여간 공백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RFA는 UNDP가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유니세프 등 평양에 상주하며 대북지원 활동을 하는 6개 유엔 기구를 대표해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내부 소식통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유엔 기구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영향으로 현지 지원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멜 깁슨, 영화 '패션오브...' 속편 '부활' 제작 돌입

할리우드 배우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속편을 제작한다. 속편의 제목은 '부활'이다. 멜 깁슨은 지난 1일 미국 콜리더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우린 이미 작업을 시작했고 이는 엄청난 작업이다"라며 "제목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2'가 아니라 '부활'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내용을 담을 것이고 마치 실제 일어난 일처럼 현실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2004년 개봉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명하는 것으로 멜 깁슨 감독, 제임스 카비젤이 주연을 맡았다. '부활'에서 제임스 카비젤이 또 다시 주연을 맡을지는 미정이나 각본은 '브레이브 하트'의 랜달 왈리스가 담당한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3,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전 세계에 6억 1,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비성경적이란 의견도 많으나 주님은 이런 영화들도 다 사용하심을 확신합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흑인교회 가서 "배우러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3일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흑인교회를 방문해 "인종에 따른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대선 출마 이후 처음으로 흑인교회를 방문했다며 "흑인표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위대한 믿음 교회'를 방문해 "흑인 사회가 차별을 받았고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잘못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흑인 사회에 일자리와 임금 혜택을 주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흑인 청년을 사이드라인에 세워놓는 것보다 슬픈 일은 없다. 이들의 에너지가 없으면 나라 전체가 손실을 본다"고 했다.

특히 이번 연설은 과거 과격했던 언행과 차이가 있었다고 WP는 덧붙였다. 그는 "배우러 왔다"거나 "여러분의 목소리를 미국의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라며 차분하고 정중하게 연설을 이어갔다. 흑인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공언하면서 "디트로이트를 재건해서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설 직후 트럼프는 목사로부터 성직자용 가운과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다. 공화당 경선주자였던 의사 출신 보수논객 벤 카슨의 초청으로 디트로이트 시내에 있는 카슨의 생가도 방문했다.

그러나 연설장 밖에서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시위대의 황기가 이어졌다. 시위대 시범이 "덱스 트럼프"(트럼프를 버려라)라고 외치면서 교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막혔다.

미 입국 시리아난민 1만 명 중 56명만 기독교인

오바마 정부는 올해 목표였던 1만 명의 시리아 난민 입국이 달성됐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소수를 차지해 비난이 일고 있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2016년 허용 난민 1만801명 가운데 수니파 무슬림이 1만600명, 아시아 무슬림 20명, 무슬림이 90명, 기독교인이 56명, 야지디가 17명 등이었다. 통계를 보면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의 수니파 무슬림들이 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리아 인구 10%가 기독교인인데 난민의 0.5%만 기독교인이었다.

지난 3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IS가 기독교인과 야지디를 포함한 소수 종교 단체에 대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난민 자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기독교 난민이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하기 전에 유엔 요르단 난민 캠프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수니파 무슬림과 IS가 이 캠프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강간하고 성노예로 납치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이 캠프에 가지 않고 다른 경로를 찾는다"고 전했다.

오바마 정부는 시리아 기독교인들을 안전하게 미국으로 입국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위스 유입 무슬림난민 기독교 개종자 증가

최근 스위스와 독일로 유입되는 무슬림 난민 수의 증가가 기독교 개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소식은 독일에서 2014년 이후 2,000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개종했다는 보도 이후의 것이라 의미가 있다.

스위스에서 교회들이 이와 관련된 어떤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지 상담가들은 비슷한 추세들에 관한 보고를 내놓고 있다. '통합과 종교 업무를 위한 스위스 상담센터'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 난민들의 수는 난민 위기 동안에 증가해 왔다"고 전했다.

센터의 코디네이터인 캐드린 앤링커는 스위스 온라인 매체 '20 Minutes'에서 "최근 몇 개월 사이 우리는 주로 개종한 아프가니스탄인과 쿠르드인들을 상담해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는 무슬림 난민들이 자국 내에서만 우세했던 이슬람교의 과격한 해석을 알고, 결과적으로 이들 안에 환멸이나 각성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다른 세계관으로 새롭게 눈뜨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편, 지금 스위스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국에서 기독교인이었으나 핍박의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은밀히 유지해 온 사람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취리히 개혁교회의 필리페 뒤틀러는 스위스의 자유복음주의 개혁교회 안에 다수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20 Minutes'와의 인터뷰에서 "자유개혁교회 안에 뛰어난 경건성과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무 연대감이 없는 지역 교회들보다 개종자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켜 준다"고 말했다.

자유복음주의 공동체는, 등록할 교회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새로운 난민들을 위한 예배와 이란인 목사가 주재하는 이란인과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한 예배를 운영한다.

앤링커는 이런 추세의 배경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한 개종이 첫 번째이고, 사회 적응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기 위한 개종이 두 번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수의 사람들이 '개종이 망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믿고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배교는 죽음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지역의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개종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종하는 이들이 망명센터의 무슬림들에게 협박을 받을 수 있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스위스 이민국의 레아 베르테이메르 장관은 망명을 신청하는 각각의 사례들이 개인의 장점에 따라 판단 받고, 개종 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통합과 종교 업무를 위한 상담센터'는 신앙의 변화에 대한 진정한 원인들이 신중히 파악하기 위해, 교회가 망명 희망자들의 세례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충고한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2016년 허용 난민 1만801명 가운데 수니파 무슬림이 1만600명, 아시아 무슬림 20명, 무슬림이 90명, 기독교인이 56명, 야지디가 17명 등이었다. 통계를 보면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의 수니파 무슬림들이 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리아 인구 10%가 기독교인인데 난민의 0.5%만 기독교인이었다.

지난 3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IS가 기독교인과 야지디를 포함한 소수 종교 단체에 대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난민 자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기독교 난민이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하기 전에 유엔 요르단 난민 캠프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수니파 무슬림과 IS가 이 캠프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강간하고 성노예로 납치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이 캠프에 가지 않고 다른 경로를 찾는다"고 전했다.

오바마 정부는 시리아 기독교인들을 안전하게 미국으로 입국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위스 유입 무슬림난민 기독교 개종자 증가

최근 스위스와 독일로 유입되는 무슬림 난민 수의 증가가 기독교 개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소식은 독일에서 2014년 이후 2,000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개종했다는 보도 이후의 것이라 의미가 있다.

스위스에서 교회들이 이와 관련된 어떤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지 상담가들은 비슷한 추세들에 관한 보고를 내놓고 있다. '통합과 종교 업무를 위한 스위스 상담센터'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 난민들의 수는 난민 위기 동안에 증가해 왔다"고 전했다.

센터의 코디네이터인 캐드린 앤링커는 스위스 온라인 매체 '20 Minutes'에서 "최근 몇 개월 사이 우리는 주로 개종한 아프가니스탄인과 쿠르드인들을 상담해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는 무슬림 난민들이 자국 내에서만 우세했던 이슬람교의 과격한 해석을 알고, 결과적으로 이들 안에 환멸이나 각성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다른 세계관으로 새롭게 눈뜨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편, 지금 스위스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국에서 기독교인이었으나 핍박의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은밀히 유지해 온 사람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취리히 개혁교회의 필리페 뒤틀러는 스위스의 자유복음주의 개혁교회 안에 다수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20 Minutes'와의 인터뷰에서 "자유개혁교회 안에 뛰어난 경건성과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무 연대감이 없는 지역 교회들보다 개종자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켜 준다"고 말했다.

자유복음주의 공동체는, 등록할 교회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새로운 난민들을 위한 예배와 이란인 목사가 주재하는 이란인과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한 예배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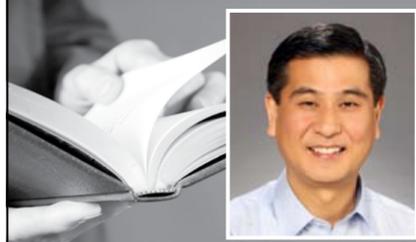
앤링커는 이런 추세의 배경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한 개종이 첫 번째이고, 사회 적응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기 위한 개종이 두 번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수의 사람들이 '개종이 망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믿고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배교는 죽음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지역의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개종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종하는 이들이 망명센터의 무슬림들에게 협박을 받을 수 있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스위스 이민국의 레아 베르테이메르 장관은 망명을 신청하는 각각의 사례들이 개인의 장점에 따라 판단 받고, 개종 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통합과 종교 업무를 위한 상담센터'는 신앙의 변화에 대한 진정한 원인들이 신중히 파악하기 위해, 교회가 망명 희망자들의 세례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충고한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66)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신앙의 자유와 경건(7)-a

현재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나름 교회 안에서 개혁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한 현실이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지닌 문제의 핵심은 '경건의 상실'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변화 받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이때 교회가 지닌 고질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질문: 경건한 삶을 위하여 모든 기독교인이 지나야 할 기본적인 신앙 정신이 무엇일까?

1) 교회 역사를 보면...

■ 누르시아의 베네딕트
누르시아의 베네딕트(Benedictus of Nursia, 480-543)는 개신교 성도들에게 생소하여도, 가톨릭교회 내에서는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를 "서방교회 수도생활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수도생활의 전통은 동방교회에서 시작되었고 크게 발전하였다.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과 쾌락을 포기하고 고행을 선택하였다. 뜻을 같이 하는 수도사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도원이 시작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비록 수도생활의 전통이 동방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향후 중

세교회의 신학을 주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수도원 운동의 전통을 세운 것은 서방교회였다. 그 중심에 베네딕트가 있었다.

베네딕트는 누르시아라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는 기회를 지녔었다

데, 베네딕트도 그 중에 하나였다. 이들은 공부를 잘 마치면 상류사회에 진출하는 길을 보장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베네딕트의 큰 갈등과 함께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아예 공부를 포기하고 로마를 떠나기로 작심한 것이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 베네딕트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그레고리 1세의 "대화록"에서 두 가지의 답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부정적인 동기로서, 그가 로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과 로마교회의 분열을 직접 목격한 후 커다란 회의를 갖게 된 것이다. 로마에 남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 자신도 도덕성을 잃을 뿐 아니라 교회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동기로서, 공부를 포기하고 자신이 정한 목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

이 더욱 바람직한 결정이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즉, 베네딕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바로 섬기려는 경건한 향한 열망이었다.

■ 경건한 수도사

로마를 떠난 베네딕트가 처음 찾은 곳은 깊은 신앙심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지내던 엔피데(Enfide)라는 도시였다. 그곳에 도

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깊은 신앙심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속히 퍼져나갔다. 세상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곧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엔피데에서 수비아코(Subiaco)로 가는 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로마누스(Romanus)라는 수도사를 만났다. 그들이 나눈 대화가 인연이 되어, 결국 베네딕트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로마누스로부터 짐승가죽으로 만든 옷, 즉 수도복을 수여받은 베네딕트는 그 후로 3년간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다른 수도사들과 마찬가지로 3년간 동굴에서 지내며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버리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 준비된 수도원장

기록을 향한 그의 열망이 주위

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비코바로(Vicovaro) 수도원에 속한 수도승들은 아예 자신들의 수도원장이 되어달라고 반복하여 요청하였다. 그들의 간청을 수락한 베네딕트는, 수도사들에게 엄격한 규율에 입각한 생활을 요구하였다. 자신이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수도원에 접목시켜보려는 시도였다.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수도사

들이 새로운 수도원장이 자신들의 삶을 구속하고 자유를 앗아가는 것이 큰 불만을 품고 크게 반발한 것이다. 심지어 음식에 독을 넣어 그를 암살하려할 정도였다.

결국 베네딕트는 수비아코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그가 홀로 지내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12개의 소규모 수도원을 짓고 함께 지냈다. 그러나 얼마 후, 자기를 시기하던 인근 교회의 지도자의 배척과 음모로 인해 그 곳을 떠나야 했다. 그가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은 몬테카시노(Monte Cassino)였다.

비록 베네딕트 개인에게는 매우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로마를 떠난 후 경험한 여러가지 일들은, 영향력이 있는 일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 그가 정착한 몬테카시노는 전통적으로 우상을 섬

기던 영적으로 황폐한 곳이었다. 조속한 시일에 온 마을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놀라운 일을 주도하게 되었다. 또한 그가 산 위에 수도원을 세웠는데, 자신이 염원하였던 경건에 대한 열정을 지닌 수도승이 모여서 생활하는 영적 공동체로서 출발하게 되었다.

■ 베네딕트 규칙서

베네딕트가 비코바로에 있었던 수도원을 떠나야 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그가 제시한 규율이 너무 엄격하였기 때문이다. 수도사들의 반응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사막과 동굴에 거주하면서 금욕과 고행으로 경건을 갈망하는 수도사들의 마음 자세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베네딕트는 3년간 동굴에서 수도사의 삶을 살

고 동의하는 규율이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믿었다.

"베네딕트 규칙서"는 전체 7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는 수도사의 의무, 예배에 관한 규율, 치리에 관한 내용, 수도원 내부의 경영에 관하여 것, 그리고 다양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베네딕트가 모든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질 것을 기대하였지만, 규칙 자체를 살펴보면 그가 수도사들에 대한 배려심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수도사들이 영적 군사들과 같은 자세를 취하기를 기대하였지만 그들을 장악하거나 획일적 행동이 가능한 집단으로 훈련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수도사들은 아직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성숙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인간들이기에, 규칙이란 그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조언" 또는 "권장 사항"이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예를 들어보자. 베네딕트는 무엇보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의식의 문제에 대하여 매우 관대하였다. 광야 또는 산에서 홀로 지내는 수도사들의 기본적인 정신은 가장 고생스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덜 먹고, 제대로 입지 않고, 편안하지 않는 잠자리를 자는 것을 경건한 삶과 연결시킨 것이다. 이와 반대로, 베네딕트는 수도원에 거주하는 수도사들에게는 의식에 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었다. 물론 절대로 허용되는 어떤 모습이라도 허용하지 않았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베네딕트는 친히 자신의 고행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수도원에 모인 수도사들이 좀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경건한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고 믿었다. 공동 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노동이다. 이 세 가지의 향유 서방교회 수도원 운동의 핵심 사항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covenantcho@yahoo.com

로마의 준비과정 거쳐 영적 황폐지 몬테카시노에서 수도원 시작 베네딕트규칙서의 공동기도, 성경읽기, 노동은 수도원운동의 핵심

(5면에서 계속)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자 해도 기도할 내용이 너무 심각하고 크면 기도할도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버티기만 하여도 은혜의 빛을 보지 않았겠는가? 생각된다. 세상문제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듯이, 은혜의 자리 앞에서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당당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었을까를 생각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의 힘을 증명하는 당당함이 아니겠는가?

은혜와 세상 앞에 당당함

어떤 분은 세상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세상재미에 빠졌던 때를 눈물로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 화려한 바깥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누추하고 불편한 감옥생활에도 전혀 출저도 불편하지도 어둡지도 않더라는 고백을 한다. 은혜를 회복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환경 안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은혜의 힘인 것이다.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스스로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그로기(groggy)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도 일상에서 잘 훈련된 복

싱선수는 그런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편지를 내지질 수 있다. 인생은 연약하다. 그러나 일상의 자기를 포기하고 항복하며 전적 신뢰의 삶을 결단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그런 순간에도 오히려 은혜의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제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당장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죽고 사는 것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린 것임을 믿어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죽을 것인가? 삶을 포기할 것인가? 문제 있을 때마다 헤어지고 나뉘어질 것인가?

목회가운데도 문제는 항상 등장

한다. 그때마다 목회할 것인가? 아니지 않는가? 사업의 문제 있을 때 마다, 점교 참언만 할 것인가? 아니지 않는가? 파과과의 개미들이 가는 파인에를 떨어지는 소리가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된다. 믿음의 분량이 문제 앞에 호들갑 떨지 않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만큼, 그의 말씀 앞에 배움과 훈련으로 체화된 믿음만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의 손에 붙들린 삶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눈/관점의 눈에 빠져드는 일을 피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의 신(神)지식(Knowing God)은 문제 속에서 자신을 떼어내어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다루게 한다. 그것을 '섬리적 해석' 혹은 쉽게 하나님의 손/눈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 이때,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아름답고 향기나게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빛어가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섬리(손/눈)의 역사이다. 말씀을 아는 자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신다. 말씀에 대한 배움과 익힘과 순종이 곧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능력의 무기를 얻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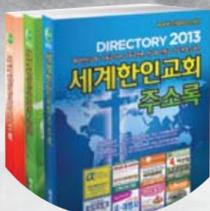
말씀을 듣고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인생은 놀라운 변

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 복된 기회를 거부하지 말라. 문제에 매이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눈으로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기본 따라-감정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은혜를 훈련함으로 축복의 열매를 맛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일과 열매가 무성하지만 쓸모없어 버림 받는 돌배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단 열매를 토해내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참 배나무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7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총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7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록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Email: la@chpress.net

유 료 광 고 안 내	출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 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출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② 교회(기관)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⑤ 사택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⑦ E-mail Add.	_____
	⑧ Web Add.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리더십 코멘터리 (25)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

리더십의 원칙-깨어나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 뉴스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교통 사망사고 1위가 졸음운전이라고 한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간의 죽음은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함으로 맞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잘 보여준다. 깨어 있지 못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피해를 안겨주게 된다. 세상에 취해 있거나 삶이 너무 평안하게 되면 쉽게 영적 영역에 빠질 수 있다. 영적 졸음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다. 리더가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소통의 길이 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파멸에 이르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

세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기침체'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교회와 기독교는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리더가 주어진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그리고 그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리더여, 지금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리더십의 원칙-돌파하고 성장하라

강인한 정신력과 강력한 혁신을 통한 실행력으로 당면한 위기를 디딤돌로 삼아 돌파해야 한다. 위기가운데 리더가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소통과 업그레이드, 끈끈한 협력정신 그리고 강한 자신감과 자기 정체성을 제시한다. 또한 혁신적 사회공헌 모델을 통해 국가,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면서 행복을 창출해 후대에도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로 다짐하라.

지금 이 세상에 사회와 교회를 비난하는 이들이 많다. 고발자들이 도처에서 위기의 불을 지르고 있다. 말로 비난하고 헐뜯는 일은 초등학교도 할 줄 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고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나가야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사회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무책임한 고발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는 리더들이다. 위기라는 터널을 빠져 나오면 위기의 광풍이 조금씩 잦아든다. 추락한 신뢰도도 회복될 것이다. 당장에 호시절이 오긴 힘들겠지만, 지금이야말로 리더들이 내일의 승리를 위한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많은 리더들은 아직도 먼지가 자욱한 광야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대대적인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회복과 성

장과 발전은 리더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과연 회복과 성장과 발전을 하려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 많은 리더들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은 과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순간이다.

리더십의 원칙-진실에 귀를 기울여라

위기가운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명한 일의 목표가 무엇이며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혀라. 리더는 위기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난관을 돌파하는 것은 다시 말해 정체성의 싸움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위기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 리더는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밝은 빛인 소망에 속한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리더는 세상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좌

무책임한 고발자가 아닌 책임감 갖고 헌신하는 리더가 필요한 시대

하나님 비전만이 위기중 '영적 나침반' 역할...하나님 약속 붙들어야

절하지 않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비전을 품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리더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비전과 대화하며 교제를 나눈다. 리더는 풍량이 거센 가운데에서도 철저히 믿음의 자세를 유지한다. 그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다. '두려워 말라'는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때, 리더는 어떠한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세차게 몰아치는 폭풍과 위기가운데 전능하신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영적인 눈이 리더에게 요구된다.

인생의 광풍, 사업의 위기, 목회의 위기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전능자의 음성만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때문이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어떠한 풍량이 몰아쳐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이 다른 모든 생각을 압도하는 지혜와 구원의 소리이다.

리더에게 있어서 인생은 늘 위기이다. 직장교회는 늘 문제로 가득 차 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닥치고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자신감을 잃고 심지어 두렵게 된다. 그럴 때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이전보다 더 담대하고 이전보다

더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는 것이다.

리더는 특별히 현대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영적인 위기이다. 그러므로 광풍 같은 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절박하게 붙들어야 할 교훈들이 있다.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계속해서 부흥, 발전할 것을 믿는다.

리더십의 원칙-비전을 확인하라

리더가 이 사회와 국가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 나가야 할 비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리더에게 더 큰 능력과 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구체적인 목적과 플랜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리더들은 그 소명을 완수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리더는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리더를 이끌고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만이 위기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리더를 인도할 '영적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의 풍랑과 목회의 위기를 만나면 내가 세운 부질없는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과 야망은 다 산산조각이 난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플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비전만이 변함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는 새로운 변화와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

리더십의 원칙-커버넌트를 붙잡아라

리더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커버넌트(covenant)를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커버넌트 위에 자신의 믿음의 뿔을 내려야 한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인만이 위기가운데 리더를 지켜준다. 리더여,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능히 보호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커버넌트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장교회와 처해진 상황 속에서 많은 풍량이 일 것이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세속적인 위기로 흔들릴 것이다.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인생이 피곤해질 것이다. 그러나 리더는 위기와 풍랑을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위기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리더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리더의 리더십이 빛나길 바란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

sondongwon@gmail.com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제 발등 짙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삼상8:3).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지만 뇌물 받고 판결을 하는 등 신실함을 버리니 다른 열방처럼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맘 상하는 사무엘을 위로하시며 세상식 왕제도의 병폐를 알려주고 허락해주시니. 문제만 다치면 아이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당장 어찌될 듯 죽어가는 소리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원대로 돌봐 주시면 도무지 언제 그랬느냐 뒤돌아보지 않고 은혜에 대해서 까마귀 고기를 먹었습니니다.

어찌 일심으로 하나님은 삶에서 믿어내며 자신의 안전, 사리사욕만 채우는 것에만 혈안인지... 언약계를 빼앗기고 그 곤욕을 치르고 이제 사무엘이 죽기로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겨우 돌려놓았더니... 아버지의 평생 일구어 놓은 일을 앞장서 허무는 자들이 두 자녀들이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혼쫓아 내면 이스라엘이 빠져든 우상 숭배를 잠시 접는 것 같으나 마귀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왕제도가 얼 굴 바꾼 우상 숭배인줄 전혀 모르고 감각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사무엘이야 선지자이니 지시하고 기도나 할 뿐, 직접 전쟁터에 앞장서서 휘두르고 시원스레 싸워주는 것은 아니니, 이방 나라처럼 눈에 든듯히 앞장 서 깃발 날리는 왕이 없으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 성회로 모여 들었을 때 블레셋이 이 때를 타고 쳐들어 왔을 때 사무엘이 반제를 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으니 큰 우뢰를 보내어 블레셋이 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로 큰 승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핑계는 사무엘의 아들이 세상적이고 사무엘과 달라 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 눈에는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므로 사무엘에게 무슨 물건 때 주듯이 그에게는 영력이 있고 아들들에게 영력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불안하니, 신뢰할 수 없는 아들들을 대신해 믿음만한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시야가 짧아 저들 보기에 남의 나라 왕이 강하고 씩씩해 나라를 잘 지키는 것만 보이고 그 권력을 사용해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위한 종 같은 처지에 학대받기가 심상임을 꿈에도 생각내지 못하는 눈 든 장님입니다. 실상을 얘기해줘도 아직 지배당하는 힘겨운 맛을 모르니, 제 발 등 짙는 고집대로 왕을 달라 우기는 이스라엘입니다.

막중한 업무에 아들들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세습으로 사사를 맡긴 사무엘의 처사가 이해는 가도 물론 잘한 것은 아닙니다. 사사의 자리를 맡기려면 우선 중심이 끈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사랑자 자질이 기본입니다. 물론 자격을 갖추었다면 자녀만큼 훌륭한 계승자가 더 있을까마는, 아버지의 인격과 사명을 능가하는 신령한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길 염원합니다.

주님! 목회는 성공했으나 자식 목회에는 실패한 사무엘을 보며 둘 다 성공할 수는 없는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목회에 바빠서 아이들의 신앙문제를 챙겨주지 못했다면 그 엄마는 무엇을 했는지? 할머니 한나도 성공한 아들이 자랑스러워 손자들의 사사될 신앙교육기엔 역부족이었을까요? 사무엘의 부인도 역시 그 수준을 넘지 못한 남편 덕이나 누리는 세속적인 사모였나 봅니다.

(9면으로 계속)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오후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성령):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중고등학생부: 오전 10시, (월) 오전 11시 영 아 예 배: 오후 8:00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세례기도: 새벽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오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오후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psattle.org</p>	<p>안다루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8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오후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Saxe,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jrb.com</p>	<p>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Tel: (915)542-0288, Fax: (915)542-9037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오후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N.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7시 세례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세례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cric.com</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o.org</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토요칼럼

가을이 오기 전에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여름이 바쁘다. 가을이 오기 전에 할 일이 많은 까닭이다. 그 중에도 여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게으른 식물들을 깨우는 것이다. 이미 절기가 입추를 지나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얽혀 오고, 하늘에서는 문게구름 타고 온다'라는 처서가 다가와 여름은 가고 본격적으로 가을 기운이 자리 잡는 때인데 뜨뜻미지근한 날씨에 절어버린 식물들은 이런 변화에 한없이 게으름을 부린다. 처서(處暑)의 '더위를 처분한다'라는 뜻처럼 하루가 다르게 낮은 짙아지고 차가운 밤이 길어지지만 겨우겨우 열매들을 맺느라 기력이 쇠해진 식물들은 쉬어가기만을 떠스다. 때는 어김이 없다. 그리고 유난

한 짙든더위가 기승을 부렸건만 입추(立秋)를 지나 처서(處暑)가 다가오니 울곧게 내렸던 파리를 슬그머니 거두고 말았다.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다는 말은 살아 숨을 쉬는 생물에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게도 해당이 된다. 풀집은 무거운데 소는 뛰고 괴타리가 끊어져 바지춤은 흘러내리는데 천동번개가 치는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여름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애꿎은 서산에다 눈을 흘기지만 바늘은 허리를 매서는 쓸 수가 없다. 순서에 따라 곁집이 생선되면 그 안에서 씨가 맺히고 양분을 흡수해 과육이 자라며 알맞게 커져서 열매가 된다. 어느 한 과

정도 생각할 수 없으며 새치기를 하듯 약삭빠른 것은 그래서 쪽정이 되고 만다.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은 봄의 탓이며 열매가 맺히지 않음은 그래서 여름의 탓이다. 이 탓은 가별지 않다. 몰랐노라고 어물쩍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날카로운 추궁에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동문서답으로 편전을 피울 수도 없다. 사명(使命)이기 때문이다. 사명은 엄중하다. 핑계할 수 없고 회피(回避)할 수도 없다. 자연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섭리(攝理)에 의해 주어진 자연의 몫은 오직 제 몫을 다함에 있다. 섭리는 창조자의 본질이다. 이것은 절대 뒤틀릴 수 없다. 만약 이것이

뒤틀려 봄에 꽃이 핀 뒤 가을이 곧 바로 오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뜨거운 여름 뒤에 차가운 겨울이 오면 모든 피조물은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을 앓게 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을 위에 있는 엉망진창을 초래하게 된다. 여름은 그래서 바쁘다. 여름의 몫을 다해 가을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창조자의 섭리에 의해서만 반응하는 자연은 변명도 핑계도 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의 관리소홀로 빚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응보로 대응(인과응보)한다. 엘리뇨 현상, 이상 기온 등이 그 대표적인 결과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사람에게 맡기셨지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놀라운 특권을 내던지고 말았다. 죄는 장성한다. 처음의 죄를 지은 뒤 사람의 죄는 날로 커져 가고 대법해졌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인 죄의 원인이 있음에도 사람은 회개를 몰랐다.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감만 못

하기라도 하다는 듯 죄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제는 창조의 영역까지 넘실대고 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 것이다. 사람이 짓는 죄의 대가는 엄중했다. 기근으로 아사자는 늘어났고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은 시도 때도 없이 창궐했으며 그 모든 결과는 죽음으로 이어졌다. 죄의 삶이 죽음으로 보응된 것이지만 공동묘지에 핑계거리들 다 안겨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땅이 저주를 받은 그 가시덤불과 영경위 틈에서 새싹이 돋게 하고 그것들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식물이 되도록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에게 대한 창조자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약망과도 같은 짙든더위가 진절머리를 치게 해도 그 여름은 선한 열매를 품었기에 쉽게 그 앞자락을 가을에 내주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뒤쳐지고 낙오하는 식물들마저 포기하지 못한 채 성큼 다가서려 하는 가을을 밀어내며 서러운 뒷

자락을 끌고 있다. 초가을을 늦여름이라 우기면서 따라오기 힘들다며 허우적대는 식물들을 억척스럽게 감싸고 있다. 가을이 오기 전의 그 마지막 해결음에 뒤쳐진 여름이 긴 한숨을 쉬며 감싸 안은 것들을 풀어놓는다. 가물어 떨어진 땀감, 탄저병에 시달린 고추, 거친 바람에 멍이든 사과와 배, 자외선에 얼룩진 포도... 그러나 얼룩지고 흠이 있는 것들이 야곱의 밀천이었기에 여름도 힘을 낸다. 올해도 가을이 오기 전에 풍성한 열매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를. 가을에게 내쉬어야 할 밀천을 뜨겁게 거머쥔 여름은 이제 귀뚜라미를 타고 오는 가을을 거부하지 않고 맞는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울리는 그것은 그 무엇보다 거부하지 못할 진리의 소리다. hanmac@cni153.org



제66-1 PCA서남노회가 베리트개척장로교회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사진은 임시노회가 열리기전 노회장 고건주 목사 사회로 가진 예배모습

PCA서남노회 제66회 임시노회 오정현 목사 관련 질의 등 비공개로 진행

PCA서남노회(노회장 고건주 목사) 66-1회 임시노회가 베리트 개척장로교회(담임 신계후 목사)에서 8월 30일(화) 오전 10시30분에 개최됐다. 이번 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총회 법사위원회로 올리는 문

구작성 위원회의 보고건', '파송된 노회 서기를 돕기위한 전권위원회 보고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찬반 진영에서 올라온 질의건'을 다루었다. <박준호 기자>

제 19회 밀알의 밤...10월 14-16일 박완규, 노유진, 유제이 등 출연

장애인 장학 복지자금 모금을 위한 제19회 밀알의 밤이 올해는 가수 박완규를 메인 게스트로 초청해 감동의 시간을 갖는다. 남가주 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 주최로 열리는 이번 밀알의 밤은 '행복'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4일(금)부터 3일간 가수 박완규

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노유진, K팝스타 유제이가 출연한 가운데 진행된다. 지난 1996년 록밴드 '부활'의 멤버로 데뷔한 박완규는 타고난 미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천년의 사랑', '약속' 등 수많은 히트곡들을 발표해 큰 인기를 누렸고, '지저스 크

라이스트 슈퍼스타", "오덕스토리" 같은 뮤지컬 작품에서도 주인공 역을 맡아 탁월한 연기력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함께 출연하는 피아니스트 노유진은 선천적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New England Conservatory of Art를 졸업한 후 US 피아노와 현악콩쿠르 대상과 VSA 영 솔로리스트 상을 수여했으며, 유제이 역시 SBS K팝스타 출연 이후 그 역량을 날마다 확장시키고 있다. 밀알선교단에서는 2001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시작해 2016년까지 총 1,958,400달러를 지급했다. 올해에도 미주장애인장학생 14명, 근로복지생 5명, 꿈나무장학생 28명, Edison장학생 5명, J&J장학생 2명, James Worldwide Inc.장학생 5명, 한국장애인장학생 10명, 제3국장애인장학생 10명,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10명, 긴급지원대상 추가자금 5명 등 총 94명에게 148,4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번 밀알의 밤의 입장료는 15달러이며 밀알의 밤을 통해 모금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다음은 제19회 밀알의 밤 일정이다. △10월 14일(금) 오후 7시30분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 △15일(토) 오후 7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16일(주)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문의: (657)400-9570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제9회 글로벌다민족콘서트가 이스트베이지역의 콩코드시의 New Hope Church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제9회 글로벌다민족콘서트...7백 명 참석

제9회 글로벌다민족 연합콘서트가 8월 28일 오후 6시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 교회 연합회 GIM(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대표 정윤명 목사/월네크릭GIM교회 담임) 주최로 이스트베이 지역 콩코드시의 New Hope Church(담임 Joseph Skiles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시67:3)라는 주제로 35여 민족 교회 커뮤니티의 700여명이 모여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의 안축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

미국의 회복과 함께 열방의 부흥을 소원하며 모인 이번 콘서트에서는 미국 내 모든 민족의 복음적 교단들 교회가 조교파적으로,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량의 일치미를 이루며 화목과 결속을 가졌다. 콘서트에 앞서 대화장 정윤명 목사의 인사 후 전한 Joseph Skiles 목사의 메시지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의 모든 민족 교회들이 다양함 가운데 일치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소원하자"고 역설했다. 한인교회에서는 북가주교회연합

크로마하프팀인 Enlightened Korean-American Women's club(단장 양경혜 집사) 연주에 이어, 오크랜드연합감리교회(담임 이강원 목사)의 국악 공연에서 '영남가락'을 할렐루야를 함께 힘차게 부르면서 흥겹게 장구를 연주해 여러 민족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이번 콘서트에 참가한 샌프란시스코의 라티노 방송 아나운서인 Orlando Cerna 목사는 "미국 주류와 함께 하는 모든 민족의 연합콘서트인 글로벌다민족콘서트를 통해 모여서 서로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의 감명을 나누고 함께 소통하며 뜨거운 감동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다른 문화 속에 언어와 피부와 세대의 차이가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번 민족교회연합 콘서트를 통해 천국의 부문을 미리 체험하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대화장인 정윤명 목사는 GIM이 주최하는 글로벌다민족 연합 행사를 통해 여러 민족들이 교회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다민족콘서트, All Nations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그리고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대회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면서 10월 15일, 16일 월네크릭 Hillside Covenant Church에서 다시 만날 것을 청중들에게 기약했다. (기사제공: GMI)

"목회자상담 시 특정내용 제공 금지" 미연방 9회지구 항소법정 SB1172 승인

지난 8월 23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연방 9회지구 항소법정(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은 성과 관계된 이슈와 성정체성의 문제로 힘겨워 하는 미성년자들을 위해 목회자들이 특정한 내용의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원발의안 SB1172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태평양법률협회(회장 브래드 대쿠스)가 밝혔다. 동 협회에 따르면 상원발의안 SB1172는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사가 동성애로부터 돌아서기 원하거나 동성애적 성향의 감소를 원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또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이러한 혼란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상담

도 금지하고 있다. 동 협회는 2012년 이 발의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시작했고, 초기에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 예비적 금지 명령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미연방 9회지구 항소법정(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접근을 고안해내 상담 동안 오가는 대화 보호받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 이 케이스는 이 법정이 이전에 판결내린 적 없는 종교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사생활의 보장보다 넓은 의미로 종교, 재산, 결혼 등등의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소유가 국가로 부터 침해당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측면에서 다시 다루지게 됐다.

동 협회의 핵심 원고는 목사인 동시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회의 상담사역을 관장해 온 결혼-가정 치유상담사다. 동 협회는 이 발의안이 결국 목사이며 또한 정한 자격이 있는 결혼-가정 치유상담사가 상담 동안 무엇을 말 할 수 있고 무엇을 말 할 수 없는지 지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 협회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우리는 오늘의 판결이 종교의 자유를 크게 퇴보시켰는데 대단히 실망했다. 상담 중에 목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지 지시하는 정부는 목사에게 어느 부분의 성경이 허용될 수 없는지 지시하는 정부와 같다. 오늘 이 법정은 이 법안이 이후로 부모들의 권리를 제약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태평양법률협회)

Advertisement for '담임목사 청빙' (Pastor Recruitment) by the South East Asia Christian Church.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church's location in South Park, the recruitment proces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cruitment committee.

(8면에서 계속) 그러기에 아버지의 사명보다는 권리를 남용하던 엘리의 아들들의 길을 따랐으니, 너무도 맘이 아픕니다. 어려서 엘리 아들들의 삶을 너무도 잘 아는 저가 자신의 아들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아마도 자기 아들은 자동적으로 자기와 같이 되

저 아이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삶에 주관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저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눈물로 애타게 구합니다. heenlee55@hanmail.net

(4면에서 계속)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자기를 좌절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지금 좌절의 감옥 속에 던져진 영혼들이 있다면 이 진리를 기억하시

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동부교계 기사판



“전도와 새 가족 사역 컨퍼런스”

뉴욕전도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가 주최하는 “전도와 새 가족 사역 컨퍼런스”가 10월 10일(월)과 11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월드밀알 2016 찬양대축제”

월드밀알선교협창단(단장 이정진 장로)이 주최하는 “월드밀알 2016 찬양대축제”가 10월 16일(주) 저녁 8시 맨해튼 카네기홀에서 열린다.

목회자녀 장학생 선발

뉴저지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가 목회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코네티컷 주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목사, 전도사, 선교사) 자녀로 현재 대학(학부)에 재학 중인자로 선정인원은 15명, 장학금액은 1500달러다.

볼티모어교협 연합집회

볼티모어교협 연합집회가 9월 15일(목)부터 18일(주)까지 열린다. 장소는 15, 16일은 갈보리장로교회(담임 조병래 목사), 17일, 18일은 빌립보교회(담임 송영선 목사)이며, 강사는 나성균 목사(살롱장로교회 담임)로 전기현 장로의 간증순서도 있다.

담임목사 청빙

퀸즈연합장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목사안수후 목회 경력 3년 이상, 본교단(PCUSA) 소속 또는 가입 가능, 이중언어 구사에 불편이 없고 미국 체류에 결속 사유가 없어야 한다.

어린이 노래자랑 대회

웨체스터한인교회협의회와 아이소리모아협창단이 주최하고 웨체스터한인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노래자랑이 9월 24일(토) 오후 7시 조안 T. 핀커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다.



뉴욕리폼드신학교 2016년 가을학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등록금 정부회장 3천불, 감사는 없어

뉴욕교협 43회기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발표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종명 목사)가 43회기 정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 등록 공고를 발표했다.

등록기간은 9월 19일(월)부터 23일(금) 정오 12시까지이며 등록 장소는 뉴욕교협 사무실(244-97 61 Ave. Little Neck, 718-279-1414)이다.

교협 정관 제 11조 자격에 따르면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목사, 회장 및 부회장은 본 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2)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된 자로 한다. (3) 뉴욕에서 담임 목회 만 5년 이상된 자로 한다. (4) 본 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5)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6) 회장 및 부회장 출마는 각각 3년 이내로 제한한다. (7)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수 없다. (8)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제1항, 제4항, 제5항에 준한다. (9)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와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10) 입후보자는 영주권 이상 소지자로 한다. (11) 입후보자는 본회를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제 12조 등록서류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 사무국에 접수해야 한다.

- (1) 등록원서 1통(교협 소정양식) (2) 소속 교단 추천서 1통(소정양식) (단, 독립교회 회원은 증경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3) 본회 회원과 10교회 추천서 (4) 증경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 (5) 이력서 1통(사진부착, 가족사진 1매) (6) 입후보 소견서 1부 (7) 회장, 부회장(목사) 입후보자 등록금 3천 달러, 평신도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금 2천 달러의 납입증명서 1통, 감사 입후보자는 등록금 없음(서류만 제출) (8) 목사 안수 증명서 1통(복사본) (9) 여권과 운전면허증(복사본) (10) 최근 주부 4매 (11) 감사 입후보자는 3, 4, 6, 11항을 면제한다. (12) 이력서 및 모든 서류의 허위 또는 문서 위조 발견시 선거위의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한다.

또한 제13조 소견발표에 의하면 입후보자는 선거 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4조 선거운동은 본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언론 토론, 공고

및 홍보행위와 선거위가 정한 규정 외에는 일체 금한다.

필라교협 복음화대회 일정발표

9월29일-10월2일, 강사 고명진 목사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안문균 목사)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음화대회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안문균 교협회장은 “이번 성회를 통해 교회간의 유대와 신앙 성숙은 오직 예수 안에서 찾고, 한 미 대통령 선거를 위한 특별 기도와 차세대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어 교계와 동포사회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모든 분들의 참석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대회는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강사는 고명진 목사(수원 중앙침례교회 담임)를 초청했다.

대회기간은 9월 29일(목)부터 10월 2일(주)까지이며, 장소는 필라델피아의 한인교회(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개최한다.

대회일정은 △29일 오후 8시, “오직 예수”(눅2:41-51) △30일(금)

한편 이번 43회기 회장은 김홍석(뉴욕능기교회 담임) 현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하게 되며 목사부회장은 김 전목사(뉴욕대한교회 담임)가 뉴욕목우회 8월 월례예배에서 출마를 밝힌 바 있다. (유원정 기자)

오후 8시, “응답 받는 외침”(눅 18:35-43) △10월 1일(토) 오후 8시, “신앙 리셋”(눅19:28-40) 2일(주) 오후 6시, “한 사람”(렘5:1)이란 제목으로 설교한다.

목회자 세미나는 10월 1일(토) 오전 10시 몽고메리교회(담임 최해근 목사)에서 열리게 되며 대회에 앞서 3차에 걸친 복음화 준비대회를 갖는다.

△1차는 9월 11일(주) 오후 6시 한마음교회(담임 김영천 목사) △2차는 9월 18일(주) 오후 6시 낙원장로교회(담임 최영관 목사) △3차는 9월 25일(주) 오후 6시 헬로쉽교회(담임 천조웅 목사)에서 열린다.

또 청소년 복음화 대회는 10월 14일(금) 오후 8시 기쁨의교회(담임 박성일 목사)에서 개최한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지난달 25일 열린 뉴욕교협 임실행위원회에서 최창성 선거위원장이 선거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수의 섬김과 사역 본받는 제자로 훈련” 뉴욕리폼드신학교 2016년 가을학기 개강예배

뉴욕리폼드신학교(학장 유상열 목사) 2016년 가을학기 개강예배가 4일 저녁 6시30분 사랑의동산교회(담임 강신용 목사)에서 열렸다.

개강예배는 유상열 목사 인도로 기도 조복만 집사, 말씀 조국환 목사, 헌금위원 최미하 전도사, 헌금기도 및 축도 최희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초대학장 조국환 목사는 “사역자의 자세”(롬2:17-2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가 사회의 리더가 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혁의 모범적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문을 택했다”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세례를 받도록 훈련, 인도, 양육하는 일이 본교의 가르침인데, 먼저 자기부정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둘째, 섬김의 본을 보이며, 셋째, 진정한 회개를 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사역의 본을 따르는 것은 사역자의 긍지가 된다. 겉모습이 아니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역자로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리폼드신학교는 이번 가을 학기에 △기독교커뮤니케이션 △신약사 △종말론 △선교학을 강의하며 특강은 △장로교회가사 진행된다.

유상열 학장은 이번 학기 교과과정을 소개하면서 △전도/선교와 상담에 꼭 필요한 커뮤니케이션과 △신약 전반에 걸친 신약사, △조진학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말론, △무수히 회자되는 선교에 대한 학문적 선교 접근과 병행하는 실제적 선교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2016년 마지막 단기선교자인 할렘에서 박성권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2016년 여름 단기선교 마무리 8월 30일 할렘선교...15명 결신 열매도 남겨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지난 8월 30일 할렘선교를 끝으로 2016년 여름 단기선교를 마무리했다.

이날 출발에 앞서 김성국 목사는 “선교가 무엇인가?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봉사가 아닌 복음만이 생명을 살린다. 예수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 갖고 가지”며 선교대원들을 격려했다.

퀸즈장로교회가 후원하는 할렘 사역은 김명희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으며 사역대상의 1/3은 홀리스, 2/3은 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김 선교사는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 졸업후 21번째 매주 화요일 오전 “Soul kitchen” 사역을 하고 있다.

또 의복도 도네이션을 받아 제공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이날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를 통해 참석자들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박성권 전도사) 신앙고백을 하고, 마지막에는 15명이 결신을 다짐하는 영접기도를 받기도 했다. 특히 G2G 어린이찬양팀의 찬양과 그레이스선교무용단의 부채춤은 많은 감동을 이끌어냈다.

오인수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선교팀들은 불고기와 샬러드, 주스와 수박, 과자 등 풍성한 점심을 대접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며 참석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여름에 퀸즈장로교회는 7월 25일부터 케냐(7/25-8/6), 필라델피아(7/30-8/5), 인도(8/5-13), 캄보디아(8/11-23), 할렘(8/30) 선교를 진행했다. (유원정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동부(NY, NJ) 교회' (East Church) featuring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header includes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and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남가주교협 회장-수석부회장 갈등 수면위로 폭행 관련 기자회견 각각 열어...TRO 신청도

공석중인 회장 선출을 계기로의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보이며 출범한 46대 남가주교협(회장 강신권 목사)이 회장 폭행사건 건으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진통 끝에 출범한 46대 교협은 임원인 구성 등의 마찰로 회장과 수석부회장간 의견대립이 깊은 갈등의 골로 들어갔으며 결국 폭언과 폭력으로 표출이 되고 말았다.

당시 교협임원회의에서 발생한 김재울 수석부회장의 폭언이 담긴 동영상 SNS로 공개됐으며 8.15 광복절 예배가 열리기 전인 11일 로텍스 호텔에서 발생한 교협수석부회장과 회장간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교협회장이 담임으로 사역중인 세계성경장로교회 당회원들이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 교협사무실에서 열린 김재울 수석부회장 주최 기자회견에서 김재울 목사는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폭행과 폭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솔로몬 재판과 같은 금번 사건을 '교협'이라는 아이를 살려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용서와 침묵으로 인내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아이를 쫓겨 어서라도 갖겠다는 가짜 엄마에게



남가주교협이 회장 폭행사건 등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온 가운데 회장과 수석부회장간 기자회견을 각각 여는 촌극을 빚었다

이 '교협'이라는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결단으로 교협의 현 실상을 공개한다"고 발언을 열었다.

김 부회장은 "선교에 빛을 가리고 교회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교회와 사회 앞에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오랜 교협 활동, 중흥교회 운동, 특히 하나님께서 내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를 통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다.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로 달리는 교회를 다시 부

흥의 길로 세울 수 있는 종교개혁의 가치를 듣고 실현시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라며 준비된 차기 회장임을 염두에 둔 듯 한 발언을 했다.

회장인 강신권 목사에게 김 목사는 "지난 5월 9일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된 강 목사가 단 한 번도 합법적 임원회를 한 적이 없고 취임예배와 8.15기념예배 등의 대외행사를 사적인 조직으로 치렀다. 사무실 렌트비도 5월까지 수석부회장이 냈고, 강 회장 측에서 6월과 7월은 지급했으나, 8월은 아직 미납이며, 사무총장의 임금(월1,250달러)은 4개월째 지급되지 않는 등 교협 살림살이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두 번에 걸친 동영상 악의적 목적으로 유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교협의 명예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정관 제척사유 발동, 이사회와 비상확대임원회를 통해 강신권 회장 불신임결의와 정해진 목사 영구제명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9월 7일(수) 같은 장소에서 변호사를 대동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견장에는 한 시간 앞서 나눔장로교회에서 열린 강신권 회장의 기자회견에서 강 회장은 "그동안 8.15 연합예배에 전력을 다 하느라 정작 교협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못했다. 이점에 있어서 회장으로서는 짊어져야 할 사명에 소

홀했던 점은 교협을 일구어온 선배 동료와 회원 교회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지난 교협회장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남은 임기 동안 교협의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강 회장은 "첫째, 정관개정을 단행하겠다. 그동안 임원구성과 여러 여건 상 시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가능하겠다. 둘째, 교회 전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셋째, 재정 투명성을 완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 공개적으로 단돈 1불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제도를 운영하겠다. 넷째, 오는 11월 30일 전까지 앞으로 있을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섯째, 교협 자체의 혼돈과 어지러움, 목회자로서 또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교협사무실에서 열리지 못한 배경에 대해 강신권 회장은 "현재 교협사무실 키를 갖고 있지 못하다. 오늘 11시에 김재울 수석부회장이 교협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따로 한다고 하기에 장소가 겹치면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몰라 부득이 교협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 수석부회장 김재울 목사의 기자회견은 교협 회장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로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교협사무실 키도 광복절 행사 전에 한국에 약 3주가량 나갔다가 돌아와보니 바뀌어 있었고, 자신에게 지금까지 새로운 키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로텍스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강 목사와 김 목사의 폭행사건에 대해서 강 회장은 "8월 30일에 LA카운티 수페리얼코트에 임시 접근금지 명령(TRO)을 신청을 했다. 폭언과 폭행을 하고도 자작극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 2가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가주교협 회장 강신권 목사가 발표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준칭생략).

△수석부회장 김재울 △부회장: 김관진, 권순강, 김영배, 백지영, 손태정, 이상기, 이정현, 이준준, 정삼희, 정종윤, 정우성, 조병국, 조봉상, 최명상, 김선국 △총무: 김영구 △부총무: 김용호 △서기: 이동규 △사무회계: 김성훈 △감사: 피터김, 홍만애 △교무부: 마동환, 김기현. (박준호 기자)



나눔선교회 창립20주년 감사예배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본 선교회 스태프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나눔선교회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드린다 17일 오후 5시 충현선교교회

나눔선교회(대표 한영호 목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17일(토) 오후 5시 충현선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창립 감사예배를 드린다. 나눔선교회는 악물, 도박, 알콜, 청소년 문제 등을 상담 및 치료하는 재활기관으로 마약 등에 중독돼 학생들은 젊은이들을 영적 치유, 치료사역, 예방활동, 세미나, 캠프 등을 통해 돕고 있다.

나눔선교회 창립자이자 대표인 한영호 목사는 청소년문제 전문가 역자로서 청소년 약물예방 교육 세미나 및 간증 세미나와 집회를 인도하고 있으며, 2,000여회 이상 마약, 알콜을 그리고 재활치료 상담을 하고 있다.

한영호 목사는 "나눔선교회의 임원들 중 한 때 악물, 알콜을 등으로 탈선했다가 나눔선교회를 통해 극복한 사람이 많다. 1년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를 받은 후, 악물 등을 끊고 극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목사는 "제 자신도 마약을 20년 이상했고 경에도 몸담았던 적이 있어서 지금 마약 등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의 상황과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다. 부디 많은 분들이 나눔선교회를 찾아와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허성규 간사는 "마약 및 알콜을 중독자로 폐인생활을 했고 나눔선교회를 알기 전에는 웃는 방법조차 몰랐다"며 "선교회를 통해 마음을 치유 받고 웃는 방법을 배우게 됐고 이전보다 건강을 많이 되찾았다"고 말했다.

허 간사는 "과거 나눔선교회에서도 이전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해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저를 다시 받아주었고 나눔선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저도 어딘가 쓸모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더욱 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고백했다.

허 간사는 "현재 나눔선교회는 LA 한곳에 있다. 하지만 나눔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잘못된 습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나눔선교회에 따르면 현재 신청 대기지만 300명에 이른다. 이번 20주년 감사예배에는 나눔선교회를 거쳐간 모든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문의: (213)389-9912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베리트개혁장로교회로 교회 이름 변경

남가주남포교회(담임 신계후 목사, 3407 W 6th St, #403, LA, CA)는 교회 명칭을 베리트개혁장로교회로 변경했다. ▲문의: (213)674-7225

목회자를 위한 위기가정 관리세미나

기독교 가정사역 기관인 가정예배우사람들(Family Builders Ministry, 대표 금병달 목사부부)는 목회자를 위한 위기가정(이혼/사별) 관리세미나를 19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Western Covenant University(680 Wilshire Plaza, LA)에서 '가정의 위기/트라우마로부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금병달 박사(WCU 학장)와 금영진 박사(WCU 교무처장)이며 회비는 20달러(교재 및 간단한 오찬 포함). ▲등록 및 문의: (213)884-8156) 나승렬 목사

베델한인교회 2016 선교기금모금 행사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설립 40주년을 맞이해 선교기금 모금행사를 17일(토)부터 24일(토)까지 동양화(한국화) 판매와 음식부스를 통해 개최한다. 장소는 본 교회 플라자/체육관. ▲문의: (949)854-4018

피아노 반주자 모집

주남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는 주일 2부 예배(오전 11시)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성가대 반주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이며 이력서를 이메일(jscoffice01@gmail.com)로 9월30일까지 보내면 된다. ▲문의: (310)325-4020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 고 김계용 목사 추모예배 및 산돌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주산돌회...총 15명 신학생들에 전달 고 김계용 목사 26주기 추모예배 및 장학금 전달식

고 김계용 목사 26주기 추모예배 및 산돌회 장학금 전달식이 9월 1일 오전 11시 나성영락교회 친교실에서 열렸다.

미주산돌회 총무 안덕원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15명의 신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장학금 전달식이 열리기전 박희민 목사(미주산돌회 이사장)의 인도로 시작된 고 김계용 목사 26주기 추모예배는 안덕원 목사가 기도를, 여성중창단이 특송했으며 이사계 안고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담전 6:11-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박희민 목사가 축도했다.

산돌회는 지난 1964년 10월9일 당시 전도사였던 김치현 목사, 김계용 목사, 김병주 목사가 좋은 일을 하기위한 마음으로 결성했으며 당시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학생의 학비지원을 하여 김득

룡 목사(별세)에게 첫 번째 산돌회 장학금이 전달됐다. 미주산돌회는 42년 전인 지난 1974년 7월12일 김계용 목사가 조원일 목사와 김은성 목사 집에서 창설했으며 해마다 신학생들과 미자립 교역자의 생활을 돕기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산돌회는 한국에 71명, 미주에 130명의 회원이 있다.

다음은 산돌회장학금을 수여받은 자명단.

노용진, 이시은, 이우승, 정철현, 김미혜, 노영주, 한아영(이상 미주장신대학교), 김성진, 이상화, 이상진, 이상조(이상 풀러신학교), 김충만, 하신열(이상 탈북신학교), 최홍섭(아주사퍼시픽신학교), 김성수(무디신학교).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나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후 2:30(월-토) 새벽기도회: 오후 6:15(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213)388-7101, Fax: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ax: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frscca</p>	<h3>남가주사랑교회</h3> <p>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드림)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영성-KDC, 킹덤드림센터): 주일 학교: 오전 11:00 평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nkchurch.com</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h3>등문교회</h3> <p>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stmpc.org</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영성) 선교인양예배: 오전 11:00 대학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h3>세계성경교회</h3> <p>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45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새벽기도회: 오후 3:00(월-토)</p> <p>www.gracemc.com Tel: (714)448-626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Ct.,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세운교회</h3> <p>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org</p>	<h3>중은마을교회</h3> <p>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요찬양예배: 오전 11:45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6239, Fax: (714)646-6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v.com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9400 2423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코너스톤교회</h3> <p>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요찬양예배: 오전 1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2:00(영성) 주요찬양예배: 오후 3:00(영성)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p>	

9월 한연추 구성→10월 합의안 마련→11월 완성

한기총-한교연-교단장회의 '한국교회 연합 선언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교회교단장회의 등 3개 연합기관 대표들은 10월말까지 한국교회의 연합방안을 마련한 뒤 11월말까지 연합을 완료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교연 3인, 한기총 2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각각 1인 등 7인으로 한국교회연합추진위원회를 조직키로 했다.

이들 3개 단체 대표는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조일래(한교연) 이영훈(한기총) 대표회장과 박무용(예장합동) 채영남(예장통합) 총회장, 이종승(예장대신) 부총회장, 최성규 전 한기총 대표회장이 참석했다.

선언문에선 연합추진위원을 총회

장 혹은 증경총회장급으로 선정하고 9월말까지 조직을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실무팀도 구성해 연합에 필요한 제반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추진위원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경우에 대비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도 담았다. 추진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한교연 한기총 교단장회의 3인 대표의 합의에 따르고, 3인 대표의 합의도 어려우면 한교연 한기총 대표회장과 예장합동 통합 기감 대신의 총회장이 모여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처럼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한 만큼 이번이 없는 한 한국교회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기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한기총 한교연 각 교단 관계자 및 교계 기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선언문 발표 후 질의 및 응답 시간은 따로 갖지 않았다. 이종승 부총회장은 이에 대해 "오늘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선언하는 자리"라며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내용은 향후 구성될 7인의 연합추진위를 통해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가진 별도 인터뷰에서 조일래 대표회장은 "한교연은 이제까지 이단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새롭게 구성될 연합추진위를 통해 이단이 모두 배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 되기로 선언한 뜻 깊은 날"이라며 "연합추진위에 들어갈 건전한 교단을 중심으로 한기총과 한교연, 교단장회의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리 보는 2016 주요 교단 총회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이번 총회에서 개혁주의 교리에 입각한 교회를 지향하며 건강한 교단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모은다. 예장고신(총회장 신상현 목사)은 '교회개혁'을 표어로 관련 안건에 집중한다. 바른 신학을 중시하는 예장합신(총회장 안만길 목사)은 교육이나 신학 관련 안건이 많이 현의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총회장 장종현 목사)은 지난해 백석과 대신 교단의 전격 통합 이후 첫 총회를 갖는다. 교단의 화합과 책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유영식 목사)는 임원 자격 등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예장합동, 고신, 합신, 예장대신, 침례회

◇예장합동=서울 역삼동 총회 회자의 생계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에서 오는 26-30일 열리는 제101회 정기총회에서 건강한 교회회와 부총회장 선거에는 각각 배광호(부산 남천교회) 김상석(서울 대양교회) 목사가 단독 출마

회자의 생계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안도 현의됐다. 총회장과 부총회장 선거에는 각각 배광호(부산 남천교회) 김상석(서울 대양교회) 목사가 단독 출마

예장합동, 건강한 교회 위한 대각성기도회 제안 대신-백석, 통합 후 첫 총회...키워드는 화합·내실

는 의견이 올라왔다. 목사·장로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목회 매뉴얼을 제정하자는 안도 상정됐다. "교단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해결책이 요구된다"는 게 제안 취지다. 가톨릭의 사제를 상징하는 로만칼라 착용과 마리아 십자가(M십자가) 설치를 금지하자는 현의안도 눈에 띈다. 총회신학원의 야간과정을 폐지하자는 안도 올라왔다. 목회자 대량 배출에 따른 자질 저하와 수급 조절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대외적으로는 동성애·이슬람 확산에 대한 교단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동성애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성적 지향' 문구 삭제 결정에 동참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할랄식품 관련 계획에 대한 탄원 건도 있다. 이슬람 확산 우려가 있기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계복음연맹(WEA)과 교류를 금지해야 한다는 안도 상정됐다.

임원 선거에선 총회장에 현 부총회장인 김성규(성남 성현교회) 목사가 선출될 예정이다. 부총회장 후보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예장고신=총남 천안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오는 20-23일 '대응하자! 교회개혁' (왕하 18:1-8)을 주제로 제66회 총회를 개최한다. 고신은 지난해 총회에서 현의된 노회 지역 개편 및 명칭 변경 문제를 올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교단 관계자는 "효율적인 사역과 선교를 위해 각 노회의 관할 구역과 이름을 시대 변화에 맞춰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세대의 교회 출석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해외 각지에 흩어진 한인들을 위한 교회 개척 전략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관련 행사도 기획할 예정이다.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 목

예 장 합 동	고 신	합 신
대각성기도회, 목사 재교육	노회 구역 조정 및 명칭 개정	여성 안수에 대한 입장 규명
목회 매뉴얼 제정, 총회신학원 야간 과정 폐지	다음세대 감소 원인 분석 및 성장 대책	임원선거에 전자투표 도입
동성애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 설치
세계복음연맹(WEA)과 교류 금지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 목회자 전담 생계비 관련 기구 설립	남북통일 준비 위한 정책수립 위원회 설치

한다. 확정해 놓았다.

◇예장합신=제101회 합신 총회는 오는 20-22일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진행된다. 교단 정체성에 맞는 교제 개발과 평신도 교육 등을 전담하는 교육위원회 설치안을 검토한다. 여성 안수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안도 현의됐다.

임원선거 때 전자투표를 도입하자는 안도 올라왔다. 종교개혁 500주년과 남북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안도 논의된다.

충천 한마음침례교회의 부활신앙에 대한 신학 연구안도 현의됐다. 합신에선 총회 대의원 전원이 총회장 후보가 되며 사전선거 운동은 금지돼 있다.

◇예장대신=총남 천안시 백석대에서 오는 5-8일 열리는 정기총회의 키워드는 '내실(內實)'이다. 대신은 통합 후 7200여 교회, 1만2000여 목회자가 소속된 '대형 교단'으로 부상했다. 먼저 내실을 다진 후 대형교단으로 위상에 걸맞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번 총회에서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통합 문제가 핵심 안건 중 하나다. 예장대신은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단 통합을 이룬 경험이 있는 만큼 그 어느 교단보다도 한국교회의 하나 됨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총회에선 총대들의 중지를 모아 교단 차원의 의지가 실린 통합 촉구문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로 국가 안보가 위협 받고 있다는 인식 하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설치에 찬성하는 결의문을 채택, 총회 선언문에 반영키로 했다.

다음 회기 교단의 중점 사업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한다. '국내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를 총회장 직속기관으로 뒤 활성화하고, 목회자를 위한 연장교육과 영성대회 실시로 영적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교단 규칙에 대한 논의와 부서 신설 건 등도 다룬다.

총회장에는 현 제1부총회장인 이종승(창원 임마누엘교회) 목사, 부총회장에는 유종국(서울 제자교회) 목사, 박창우(서울 원천교회) 장로가 각각 선출될 예정이다. 대신은 지난해 통합 과정에서 합의에 따라 임원 후보를 모두

예장합동, 건강한 교회 위한 대각성기도회 제안 대신-백석, 통합 후 첫 총회...키워드는 화합·내실

예 장 합 동	고 신	합 신
대각성기도회, 목사 재교육	노회 구역 조정 및 명칭 개정	여성 안수에 대한 입장 규명
목회 매뉴얼 제정, 총회신학원 야간 과정 폐지	다음세대 감소 원인 분석 및 성장 대책	임원선거에 전자투표 도입
동성애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 설치
세계복음연맹(WEA)과 교류 금지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 목회자 전담 생계비 관련 기구 설립	남북통일 준비 위한 정책수립 위원회 설치

한다. 확정해 놓았다.

◇기침=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오는 19-21일 열리는 제106차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유영식 목사) 정기총회에서는 조정식(부산 행복한국교회) 목사와 조원희(고양 성광교회 협동) 목사의 총무 피선거권 유무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조정식 목사는 제1부총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려 했으나 후보 등록이 거부됐다. 총회 임원회가 조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징계, 대의원 자격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피선거권은 대의원권이 있는 이에게만 주어진다.

현 총무인 조원희 목사는 재임에 도전하려 했으나 후보 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무 재임 때의 사업 실패로 교단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총회 임원회가 앞서 대의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따라서 총회의 첫 순서인 회원 점명(대의원 이름을 확인하는 것) 때부터 이들 2명에게 대의원권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2부총회장 후보가 나올 것인 지도 관심 사항이다. 현재 제2부총회장 후보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총회 현장에서 후보 등록비를 내면 바로 후보가 될 수 있다. 총회장 선거에는 윤덕남(서울 성일교회 협동) 유관재(일산 성광교회) 박종철(전주 새소망교회) 목사가 후보로 나섰다. 5년 임기의 총무 선거에는 안병창(전 진흥원장) 이경희(총남 세도교회) 목사가 출마했다.

한국교회 95% 이우르는 명실상부 대표기구 탄생 예고

연합 선언 의미와 배경·전망

한국교회 95% 아우르는 명실상부 대표기구 탄생 예고 기사의 사진 조일래(한교연) 이영훈(한기총) 대표회장과 한국교회교단장회의 박무용 전총재 공동대표가 31일 발표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선언문'은 한국교회의 염원인 '하나 됨'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대표회장은 물론 두 기관에 참여하지 않은 예장합동의 총회장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감목회장까지 참여한 만큼 성사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

추진위원 2명은 한교연과 한기총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 밝히고 있다. 조일래 이영훈 대표회장은 선언문을 갖고 돌아가 각 기구의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총회를 설득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연합을 성원하고 있는 만큼 전망은 낙관적이다.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다간 도태될 것"=교계 인사들은 이번 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높게 평가하며 총회를 앞둔 각 교단의 지지와 뒷받침을 당부했다.

장차나 예장합동 전 총회장은 "한교연이 통합논의에 적극 나서준다면 한국교회의 하나 됨은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하는 한기총과 한교연 일부 인사들의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각 교단은 한국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포용하면서 통합을 일궈 달라"고 부탁했다.

손인용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명예회장은 "한국교회 전체가 동의하는 거대한 로드맵이 만들어졌다"면서 "과거의 분열과 기독교 패러다임에 빠져 한국교회 성도들이 요구하는 통합을 거부한다면 결국 해당 인사와 단체는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갖춰=선언문에 따르면 통합의 최대 걸림돌인 이단과 기독교 문제는 사실상 사라진다. 이단에 연루되지 않은 정통교단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데다 총회장 내지 증경총회장 급으로 추진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일부 기독교 세력의 개입 여지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추진위에서 합의도출이 안 돼 한국교회의 연합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2중, 3중으로 만들어 놨다. 과거 어느 때보다 성숙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합의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단과 관련된 한기총 일부 인사들이 내심 통합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교연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부 전 대표회장과 위원장들이 분명하게 반대 입

◇교착상태 타개 위한 새로운 로드맵 제시=선언문은 이단과 기독교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한기총 한교연 통합논의의 판 자체를 뒤엎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담고 있다. 한교연이 한기총에 들어가거나, 한기총이 한교연에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제3의 지대'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장감성순침(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핵심 멤버인 기감의 감목회장까지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매머드급 기구가 탄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외에 주요 교단이 대부분 참여한 만큼 한국교회의 95% 이상을 포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교회연합추진위원회는 한교연 3명, 한기총 2명, 기감 1명, 예장합동 1명으로 구성해 조화를 이루면서 대표성도 확보했다. 특히 예장합동과 기감에서 파송된

'총회 과도한 정치활동·영적 리더십 부재' 가 문제

예장합동 총대 1517명 대상 설문조사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이 총대(총회 또는 노회 대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회에 대한 만족도가 2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의 과도한 정치활동과 영적 리더십 부재, 불투명한 재정운용에 대한 불만이 특히 높았다.

이번 조사는 오는 26일 개최되는 제101회 총회를 앞두고 교단의 현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총대 1517명 중 585명이 답변했으며 직분별로는 목사 293명, 장로 292명이었다.

총대 4명 중 3명 "교단총회에 불만족"

'총회에 대한 만족도' 분야에서는 응답자의 73.5%가 '만족하지 못한다'(별로 54.5%, 전혀 19.0%)고 답해 '만족한다'(다소 23.5%, 매우 1.5%)고 응답한 총대의 3배에 달했다.

직분별로는 목사가 76.0%, 장로가 70.9%로 목사들의 불만족도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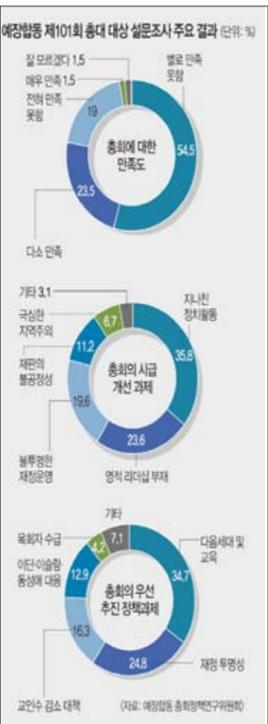
총회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 친정치활동'이라는 응답이 35.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영적 리더십 부재'(23.6%), '불투명한 재정운영'(19.6%), '재판의 불공정성'(11.2%) 등이 뒤따랐다.

예장합동 내에선 아직도 보류 상태인 총회 임원 후보자 확정 문제를 비롯해 '총회와 총신대 갈등' '후연금비리 납골당 문제' '아이티구호헌금 비리 문제' 등의 원인으로 '교단의 정치화'가 지목돼 왔는데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결과다.

총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다음세대 및 교육'(34.7%)이 꼽혀 교회학교 위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어 '재정 투명성'(24.8%), '교인 수 감소 대책'(16.3%) '이단·이슬람·동성애 대응'(12.9%) 순이었다.

특히 '총회가 이단·이슬람·동성애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선 '아니다'라는 응답이 58.1%를 차지했다. 한국교회 및 사회 이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개혁 실천 과제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권위주의 내려놓음'이 37.9%를 차지해 '선(先)회개 후(後)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이 한국교회 회복의 첫 걸음을 보여줬다. 이어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 대한 방향제시' '자기



교회 중심에서 지역사회로의 공공성 지향' '양적 팽창 및 외형중심 성장 지양'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총회정책연구위원장 장병생 목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총회정책의 향방을 책임질 총대들의 변화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총회에서 바른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통합 '이단해제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하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은 1일 임시 임원회를 열어 결원이 된 총회 특별사면위원회(특사위) 위원에 함해노회장인 오경남(영광교회) 목사를 추천했다.

이에 따라 총회 특사위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공식 중인 특사위 위원장을 새로 뽑은 뒤 사면 권고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사위는 위원장이었던 김규 목사가 지난해 29일 퇴직 회의를 하루 앞두고 돌연 사퇴해 파행을 빚었다. 예장통합 특사위는 지난해 9월

100회 총회 출범과 함께 조직된 특별위원회로 이번 회기 총회 주제인 '화해'를 적극 실천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교회와 관련된 개인별 일반사면 요청 건과 개인 및 단체의 이단 해제 여부도 함께 다루면서 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총회 특사위에 따르면 이단해제를 권고요청키로 한 대상(표 참조)은 김기동, 김풍일, 이명범, 고 박윤식(평강제일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씨와 인터콥(최바울 대표), 재림교회(안석교) 등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통

합에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류광수(다라방)씨는 제외됐다.

특사위와 달리 총회 상설 기구인 이단사비대척위원회(위원장 최성광 목사)는 이들 가운데 변승우 김풍일씨와 인터콥 등 일부만 특사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 위원회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단해제 등 사면 발표 방안에 대해서도 현 총회장이 맡느냐, 제101회 총회의 결의를 거친 뒤 발표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사위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특사위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대신 총회장 이종승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이 6일, 총회 이틀째를 맞아 본격적인 회무 처리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는 현의안 보고와 규칙집 발간 및 총회 조직 보고 등을 이어갔다. 또 임원선거도 진행했다. 대신은 지난해 통합 과정에서 부총회장에 한해 향후 4년 차 임원까지 모두 정한 상태다. 이날은 총대 앞에서 이를 제차 확

정했다. 임원이 선출될 때마다 총대들은 모두 기립해 박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신 총회 임원에는 이종승(창원 임마누엘교회) 목사가 총회장으로, 유종국(서울 제자교회) 목사와 박창우(서울 원천교회) 장로가 부총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또 1부총회장에 이주환 목사(동탄사랑의교회), 2부총회장은 박근

상 목사(대전 신석교회)가 당선됐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과 후년, 총회장에 선출될 예정이다.

그밖에 서기 안요셉 목사, 부서기 임요한 목사, 회의록 서기 김종명 목사, 부회의록 서기 강대석 목사, 회계 원형득 장로, 부회계 김건곤 장로 등이 각각 당선됐다.

교도소 선교칼럼 (4)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고통에서 기쁨으로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는 자살방지 및 의료실이 있는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이 구역에 머무는 재소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그곳에 재소자들에게 성경이나 신앙서적들을 전해주며 개인 상담을 하곤 합니다. 하루는 성경과 신앙서적을 전해주려고 니키라는 34살에 아름다운 여자 재소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그녀는 "용서의 기쁨"(Maximum Saints Forgive)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니키는 목에서부터 온몸이 문신으로 가득 차 있고 목과 팔에는 칼로 낸 상처를 투성이였기에 외모에서부터도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하던 날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전날 교도소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신청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며 저에게 그녀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또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해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니키는 막내딸도 언니가 둘 오빠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니키의 부모님들은 니키가 5살 때 헤어졌으며 아버지가 마약을 하며 간신히 직장생활을 해서 자녀들 빚을 키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니키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가져다 준 일은 니키가 아홉살 때 자신의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니키의 언니도 마약중독으로 노숙자가 되었으며 니키 역시 마약을 하며 자신의 몸을 칼로 그어 자해를 일삼았습니다. 그녀는 목을 47군데, 왼팔을 90방 꿰매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어찌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살을 4번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실패했기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 두시나, 도대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길래..."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니키의 언니는 그녀를 어렸을 때부터 무척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3주전, 니키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는 언니와 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언니를 많이 다치게 했기에 아담스카

운티 교도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역도와 레슬링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발생했으며 10년에서 30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에 당황한 니키는 자살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자살방지 보호구역에서 자신의 옷에 있는 지퍼를 이용해 목을 졸랐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니키는 자기의 왼쪽 팔을 물어뜯으며 고성을 질러서 교도소 안에서 큰 소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그녀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교도관이 니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니키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 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교도소에 오기 2달전, 자신의 방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거냐고 절규하고 있는 니키에게 한 친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그 친구는 니키의 방 벽에 십자가를 그려주었습니다. 얼마 뒤 니키가 침대에 앉아서 음악을 듣는데 "마음이 공허하다"는 노래가 나오더니 그 다음 "나를 찾았다"는 노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다시 방바닥에 주저앉아 무릎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데 벽에 있는 그 십자가 그림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있지?" 하고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니키가 마음을 가다듬자, 그 십자가가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생각이 들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 그날 니키는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니키는 새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마약도 끊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는 마약하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했으므로 2주 후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교도소에 오게 되니 니키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교도관이 해준 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재소자가 읽다가 두고 간 "용서의 기쁨"(Maximum Saints Forgive)을 읽으며 마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에서 출판되는 책 중 하나이며, 참고로 변화프로젝트 문서선교는 2005년에 아담스카운티 재소자들의 간증과 여러 사람들의 책을 출판하여 교도소 재소자들과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합니다. 그 책에 리사라는 재소자가 쓴 간증문 "핑크색 묘비"는 니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절망적인 삶에서 마약과 더불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리사는 곧 니키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사의 용서는 니키에게 용기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니키는 자신을 용서하고 그녀의 부모님을 용서했습니다. 원망과 분노 속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니키는 아직도 주님이 주신 기쁨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언젠가 나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나가게 된다면 기독교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리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녀의 눈물은 주님께서 그녀에게 임하여 주셨기에 흘릴 수 있는 회개의 눈물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심 어린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녀에게 성경과 여러 권의 신앙서적을 전해 주며 니키의 눈물에 대해 위로하고 격려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도록, 완전한 치유를 체험하여 많은 이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함께 기도한 후 니키와의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의료구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중에 한사람은 저에게 "그녀가 정말 달라졌어요.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하셔서 니키에게 변화가 온 것입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지나가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님이 또 하셨군요.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태평양법률협회(PJI) 특별 보고서(하)

-기독교육인 헬로우십(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클럽: 요세미티 교육구는 무신론자들로부터의 불평을 두려워해 학생들로 구성된 기독교육인 헬로우십(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클럽 모임을 중지시켰습니다. PJI가 이 문제에 간여해 법적 요구서를 전달한 후 요세미티 교육구는 입장을 전환했으며, 학생들은 다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업데이트(낙태반대 임신 클리닉): 2016년 상반기 동안 알파 임신 클리닉(Alpha Pregnancy Clinics)을 위해 법정에서 싸워왔습니다. 이 클리닉들은 플랜 패런트 후드(Planned Parenthood)의 압력 하에 이들이 낙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대주로부터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우리는 케이스를 누락시키려는 몇차례 시도를 막아왔고, 법원의 마지막 판결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In God We Trust"(국시에 관해): 우리는 정기적으로 지역 공무원들에게 미국의 국시, 즉 "In God We Trust(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의 게시에 대해 법적 조언을 제공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PJI는 펜실베이니아의 공직자 선발을 위한 지역 국민발의안을 작성했는데 이 발의안은 국시의 공공장소 게시의 허가를 위한 것입니다.

-외설과의 싸움: 올해 봄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관리들이 야외 바닥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만든 옥외 화장실을 설치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옥외 화장실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대중교통시설, 아파트,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등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는 건강, 위생, 풍류, 장애인 접근 등에 관련한 시와 카운티의 규정들을 스스로 위반했으며, PJI는 시와 카운티가 이들의 위반에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자유: 워싱턴 주에 있는 PJI의 제휴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간호사가 낙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수용해 줄 것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PJI가 자원을 지원하고 제휴 변호사가 케이스에 개입한 후 해당 카운티는 입장을 바꾸었고, 이 간호사에게 직장을 제공했습니다.

-공공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세크라멘토에 있는 전도사역자들은 의도를 의심케 하는 시의 소음 조례 하에 체포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해 왔었습니다. 우리 단체가 요구서를 전달한 후 시의 변호사들은 입장을 바꾸었고, 우리 의뢰인들이 공공장에서 전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양심을 지킬 권리와 결혼: 지난여름 대법원의 제양과도 같은 동성결혼 합헌 판결 이후

우리 단체는 수많은 교회들에 이러한 적대적 시기에 어떻게 교회들이 성서적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제공해 왔습니다. PJI는 동성결혼사의 집행을 요구받았던 카운티 직원을 변호하기도 했는데, 우리의 간여 이후로 이 직원의 종교적인 입장이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업데이트: 기독교 카운슬러: 기독교 카운슬러들과 교회들을 대신해 종교의 자유, 개인의 권리수호, 헌법상의 국교금지조항 등과 관련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연방 9회 지구 항소법정(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법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개진했으며,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교할 권리의 방어: 산호세 산하 법원에 출두해 목사의 설교에 불만을 품고 교회를 소송한 출석교인에 맞서 이 교회를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교회의 재산권: 지난 수년간 근교에 위치한 교회재산을 예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용허가를 얻지 못해 난관을 겪어왔던 로스앤젤레스 소재 세인트 메리 정통 교회(St. Mary's Orthodox Church)를 도와 이 교회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PJI의 도움을 통해 마침내 사용허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위원회에 법적 조언 제공: 지난 몇개월간 PJI는 다수의 학교 교육위원회와 개인들에게 학교측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 의무와 성경체성 혼란 등의 이슈에 대해 법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조력자살: 6월 9일을 기점으로 효력을 발휘한 캘리포니아의 제양과도 같은 조력자살법에 맞서 양심 있는 의료인들이 이들에게 부여된 조력자살 거부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배포해왔습니다.

2016년 하반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자원의 동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PJI는 2016년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각오가 돼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우리를 도와 이 모든 중요한 싸움에서 함께 승리를 일구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유가 침해당할 때 결코 쉽게 물러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주저함 없이 하나가 되어 맞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Brad Dacus and the PJI Legal Team
rju@pji.org

(3면에서 계속)

해나 분석가에 따르면 사우디 정보국장과 미국-영국 주재 사우디 대사를 역임한 사우디 왕실의 투르키 알-파이잘 왕자는 지난 7월 이란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된 이란 망명단체 무자헤딘-에-칼브 앞에서 보란 듯이 연설했다. 그는 "나 또한 이란 정권의 붕괴를 원한다"고 잘라 말했다.

자칫 무력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한 행보다. 이란이 그에 대한 반발로 사우디 정권을 뒤흔드는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 물론 양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직 없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고 갈수록 치열해지

는 사우디-이란의 대리전을 두고 지역 전체에서 불안감이 커진다. 특히 요르단은 사우디와 이란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길 바란다.

내전이 치열한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으로선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지금까지 120만 명 이상을 받아들였다)을 수용하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중동에서 활동하는 서방의 정보 소식통은 "하지만 요르단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불행한 일이지만 사우디와 이란이 주도하는 중동의 냉전은 한동안 격화될 수밖에 없다."

PRINTING & PROMOTION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프린팅 & 프로모션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오전 9:30-오후 8:00

- 기독교서적
- 기독교용품
- 일반서적
- 서예용품 전문
- 2016년 달력제작

CJ 택배 ups

한국으로 택배 미국내 택배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전문

교회/매장/기타단체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머그컵

타올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신코 편지

그리스 난민사역

사랑하는 믿음의 하나님 나라 가족들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어오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 하느니라"

어머님의 천국 환송식의 모든 절차를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고인이 되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하십시오. 이제 육신으로는 뱀이 못하는 아쉬움과 섭섭함과 슬픔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땅에서 여행을 마무리하시는 시간을 갖으며 위에서 소개드린 허브리서 말씀이 저희 가족들 마음 가운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육신의 음성은 이제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평생 삶으로 보여주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육신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듣게 되는 축복을, 어머니께서 금년 4월 머리 동맥 출혈로 수술을 받으시고 8월 21일 이 세상을 하직하시고 천국 환송예배 기간 동안 부모님께서 이루신 2남3녀 자녀들이 넘치도록 누리었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국 환송식을 거행하는 동안 2남3녀의 어머니의 자녀들은 어머니께서 평생 자녀들과 몇몇 친척들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오시며 오래 오래 참는 것, 희생하시는 것, 배려하시는 것을 어머니 평생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래 오래 참는 것, 희생하시는 것, 배려하시며 가족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받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의 환송 예배에서 남겨진 2남3녀가 다짐했던 믿음의 약속들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남겨진 생애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정대로 9월 6일 그리스 선교지로 귀국하여 사역을 하다가 10월 21일에는 모교회(후암장로교회) 설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기 위해 귀국하여 약 1달 정도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또한 김미영 선교사는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며 11월 말까지 쉽고 치료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기간 쉽고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의 위독하시는 급보를 받고 8월 19일 귀국하여 천국 환송식 절차를 하는 동안 일일이 소식 드리지 못하고 이제사 소식 드리는 것은 주 안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서울에서 양용태 & 김미영 선교사

admin@pgmusa.org

헝가리 부다페스트

Dear, 기도와 사랑, 또는 물질로 선교 후원해주신 분들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며 평안하신지요? 기쁨과 감사, 또 어려움 속에서... 청명해진 공기와 열매들을 보며, 고국의 추석이 다가오고 다음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마4:31-32). 지난 8월 한 달 어떻게 사셨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또 간절한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열심과 좌절, 희망과 낙망, 칭찬과 책망, 감사와 간구... 또 그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은? 주여...!

1) "여름성경 학교 & 영어 캠프"를 8월 18-20일, 주제는 "나의 삶(My Life)"로 3일간 하였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여름성경학교를 평생 추억하듯, 이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

일 점심은 각자 만들어 먹는 시간을 가졌는데, 마지막 날은 바베큐로 햄버그를 만들어 즐겨했습니다.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한, 원 선생님, 크리스티나, 에스테르, 지니, 산도르, 정 집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거리의 교회" 예배와 급식 때는 손도 다녀가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섬기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인 미셀 선교사 팀, 한국 선교사분들, 여행 차 방문한 청년들, 귀국하는 주재원분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방학 중이라 섬기게 했으며, 훗날 저희 같은 주의 종이 되길 기도합니다.

3)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김홍근 서명회 선교사' 편을 방영하였습니다(유튜브에서 재생 <https://www.youtube.com/watch?v=Zoetcu38vvU>).

4) "토요 성경학교"는 시작했고, "토요 영어학교"와 "금요 태권도 교실"은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금요태권도교실"은 튜데(Tünde) 선생, "토요 성경학교"는 로베르트 선생, "토요 영어학교"는 원선생, 에스테르, 지니, "어린이주일학교"는 피테르 전도사, "주일예배"는 임례 & 일디오 전도사, 급식사역은 산도르, 여니!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5) 저희 "쇼 & 빌라교사(소금과빛)교화"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시오.

그동안 열심히있던 베아, 아코쉬, 키티 가족이 독일로, 이보야, 에브린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로 노숙자, 집시 가족들이지만, 이 지역 주민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도록...!

선교의, 감추인 아포리즘(Aphorism)

"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이성복). 아입니다! 그 고통과 몸부림이 얼마나 거름이 되어 나무를 키워가는 지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한 터닝 포인트가 된 고통스런 일이 있었을 때... 울면 살 빠집니다. 그때 몸무게가 5kg 빠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포리즘(Aphorism)이란 경구나 격언, 금언, 잠언을 말합니다. 저도 문학을 전공했는데, 주제는 감춥니다. 각자 발견하고, 파고, 자기 것으로 삼기 때



입니다. 천국도 그렇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마13:44).

저희가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준 후, 마무리 기도를 할 때마다 밀레의 "만종"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그림 속, 기도하는 농부 부부의 발치에 놓인 감자바구니가 실은 아기 시체를 넣은 관이라고? X선을 감자바구니에 투시해보니 초벌그림에는 정말 그렇게 보였고, 아마 개작과정을 거쳐서 거라 해요. 아! 그 평화로워 보이는 그림이 있기까지 어떤 고통이 녹아있었는지...

이곳 "살라쉬 거리"에 있는 공용임대주택에는 가난한 집시 가족이 많이 삽니다. 멜린다와 브리기는 둘 다 삼십대로 자매인데 한 남자와 함께 살면서 각각 자녀를 넷씩 낳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작년 9월 마지막 주일 난민증을 안 써준다고 저를 밀고 당기며 가슴을 세게 때렸던... 브리기와 멜린다! (이 멜린다는 헝가리 관습상 엄마이름을 따라, 브리기의 질녀입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일질 들지 않고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4개월 만에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었을 때 껴안아주고 매주 심방예배를 드리며 뭐든 우선 챙겨줍니다. 그들 가족만 특별히 저희 집에 초대해 멋진 상을 차려주기도 했지요. 물론 지금까지 교회에서 다른 아이들과 싸우기도 하고 울고불고 방해와 훼손도 하지만... "당신 가족을 참 존경하고 자랑스러워요. 부모가 담배 피우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을!"

비록 방 한 칸, 다락방 반쪽에 열 한 명의 식구가 매번 쓰레기더미 위에 사는 것

같고, 한 아버지에 여덟 명의 자녀중 학교 같 나이에 자폐증과 난독증 등으로 네 명이 특수학교에 다니지만.

요즘은 그 아이들이 3개 국어를 합니다. 특히 난독증이 심한 5학년인 브리기(딸)!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 알았는지, 우리나라말로 "안녕하세요?"하며 물어 안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는 꼭 영어로 먼저 부르고, 헝가리말로 3절까지 외웁니다. 또 졸졸 따라다니며 돕고 싶어해서 기도할 때도 먼저 시키고 찬양도 크게 하도록 반주를 살살하고, 급식 때도 빵을 나눠주게 합니다.

그리고 살짝 브리기 손을 잡고 우리 거실로 데려와, 둘이서 헝가리어를 공부합니다. '아! 내가 한국에서 국어교사였는데, 이때는 헝가리어 교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쉬운 헝가리어 가스펠송을 쓰며, 읽으며, 노래하며, 가끔씩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알파벳을 씁니다.

"이슈텐 오이요- 이슈텐 요 호잠(좋은 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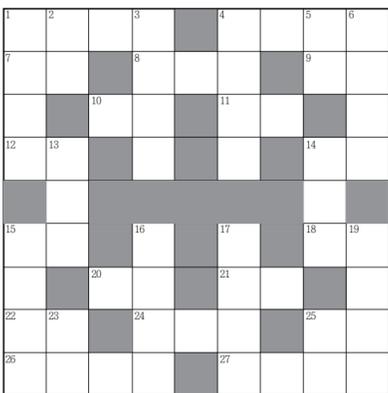
힘든 것과 고통은 다릅니다. 몸이 힘든 것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 고통은 열심히 노력한 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 두 아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고통을 겪어왔고 또 겪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빠 엄마! 기도해주세요. 저도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job을 위해... 너무 지쳤어요." 아들! 너 이미 job을 갖고 있어.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네가 받는 것은, 인내와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과 성숙,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겸손, 그리고 절대 믿음!"

mylovehungary@hanmail.net

십자말 • Cross Word (139)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1. 바울과 함께 로마 옥에 갇힌 자(몬1:23).
4. 예후의 아버지(대상4:35).
7. 엘리바스의 아들(창36:15).
8.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된 자(행1:26).
9. 어린 아이(삼상15:3).
10. 마소의 목에서 고삐에 걸려 얽은 줄(욥30:11).
11.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대신, 유대인을 멸절하려다가 자신이 죽임 당함(에3:5).
12. 회의할 때 기록을 맡아 보는 사람(왕하12:10).
14. 나훔의 점 르우마가 낳은 아들(창22:24).
15. 아셀 자손 소벨의 아들(대상7:34).
18. 시므온의 다섯째 아들(창46:10).
20. 영원한 세대나 세월(창9:12).
21. 물건을 담은 제구의 총칭(삼하8:10).
22. 무엇보다도 먼저(레23:10).
24. 물고기의 숨 쉬는 기관(욥41:2).
25. 다하고 달함이 없이 고르게(골4:6).
26. 신약 공동서신 중의 한 책, 허브리서 다음.

27. 히스기야 왕의 외조부(왕하18:2).

<세로 푸는 열쇠>

1. 구약성경 예언서의 하나, 예레미야에게 다음의 책.
2. 구브로 섬 서남에 있는 성(행13:6).
3.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인 천명을 죽인 곳(삿15:17).
4. 이스라엘 11대 왕(대하25:25).
5. 바닷속(골23:32).
6. 친구, 우애라는 뜻. 시므온지파에 속한 족장 중 한 사람(대상4:36).
13. 이스라엘 사람으로, 느디님 사람의 두목(느11:21).
14. 세겜 부근에 있는 성, 한 여인...땃들...두개골 피열과 유관(삿9:50-55).
15. 다윗의 자손 엘료에나의 아들이다(대상3:24).
16. 12소선지 중 한 사람의 예언서, 다니엘서 다음.
17. 수리아 동편 수도요, 유브라테 강가의 성읍(사10:9).
19. 여호와를 찬송하라(레19:6).
23. 재판의 판결을 공포함(고후1:9).
25. 무엇에 끼우기 위해 만든 둥근 물건(출25:14).

십자말 정답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강사: 라흥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2) '유리상자 속'에 집어넣고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고 하는 심리

목사 자녀들은 항상 옷차림부터 머리 스타일까지 감시를 받고 있다. 아버지의 목회에 지장을 줄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서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반항심이 빠지기 쉽다. 성도들의 좁은 시야로 목사의 자녀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할 때 목사부부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게 된다. 이런 경우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 그 화살의 아픔이 영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심령이 상하게 된다.

(3)목회자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목회자 자녀들이 갖는 공통적인 정신적 압박감은 '아버지의 명예에 버금가도록 모범생이 돼야 한다'는 '집 안팎의 기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자녀에 비해 자신도 모르게 프로이트가 말한 '반복적 충동'에 시달리게 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알면서도 자꾸 반복해서 하고 싶은 인간의 정신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개울가에 가면 빠져 죽는다고 야단을 맞을수록 더욱 가고 싶

아 자녀들의 교육을 도우시지 그래요?하면서 항의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였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과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으로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다 책임져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셨음을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4)자기 부모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식함 사모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하며 성도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한다. 한번은 어느 교회의 사모님이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와서 엄마를 찾자 "엄마가 지금 성도님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 저리 가서 놀아라"고 했다. 그러자 아들이 "Mommy, I am also one of your church members, too"(엄마나도 성도중의 한 사람이라고요)하면서

사에 따르면 아버지와 정기적으로 진지하게 대화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행복감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행복이 자신들의 중요한 일애 대해 아버지와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는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기독교사 부부가 교인들 때문에 갖는 혐오감이 자녀들을 다치게 한다

목회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다. 목회자들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짙은 집애 오면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힘들었던 감정을 자녀들 앞에서 표출하고 화를 낼 때가 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는 여섯 살 난 목사의 아들이 엄마 아빠의 혐오의 대상인 어느 교인의 이야기를 몰래 듣고 교회에 가서 큰 돌을 그 교인에게 던져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부모를 괴롭히는 교인에게 영웅 심리로 덤벼들지만 결국 나쁜 아이로 낙인이 찍히고 상처를 받은 결과가 되었다.

사모단상



이희숙 사모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10)

은 심리다. 항상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풀려나기 위해 목회자의 자녀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탈선의 길로 가고 싶은 충동이 더 강하게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에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테두리를 풀어 버리려는 역반응적 자기보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PK(목회자자녀)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는 목회자 자녀들이 탈선에서 보호되려면 부모가 깊은 배려와 이해를 보여주는 동신에 교인들도 비판적인 시각을 바꿔서 따뜻한 배려로 변화시켜야 한다.

PK(목회자자녀)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는 목회자 자녀들이 탈선에서 보호되려면 부모가 깊은 배려와 이해를 보여주는 동신에 교인들도 비판적인 시각을 바꿔서 따뜻한 배려로 변화시켜야 한다.

자기와 시간을 갖기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성도들은 예배 후에 자기 자녀들만 챙기면 되지만 사모는 자기의 시간을 많은 성도들과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린 마음의 상처

필자 남편의 선배 목사님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 자기가 행했던 일을 말하면서 목회자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실례로 들려주었다.

자기 아버지가 사역을 할 때 당회만 하고 집에 돌아오면 몹시 괴로워하면서 아무게 장로가 당회 때마다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린 나이에 속이 상해 한번은 그 장로의 아들이 지나갈 때 구정물을 끼얹었더니 "너 왜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하며 고함을 치더라. 그래서 화가 난 언성으로 "내가 왜 너한테 그러는지 집에 가서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하며 자기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장로의 아들을 괴롭혔다며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 심정을 말해 주셨다. 가정에서 목사 부부는 자녀들에게 목사 부부의 아픔이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불평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대화를 조심해야 한다. hslee39@sbcglobal.net

5)다른 자녀들과 동일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에서 판단을 받음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자녀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대표로 잘못을 지적받거나 혹은 다른 자녀들보다 더 나쁜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너는 목사의 자녀니까 그래서 더 안된다"라는 말 한마디가 목사의 자녀들을 병들게 한다. 또는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나친 희생을 강요할 때 상처를 받게 된다.

6)목사 아버지가 자녀들과 충분히 함께 지내는 시간이 없다.

목사인 아버지가 교회의 일로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자녀들과 대화 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바쁜 교회의 일로 자녀들을 돌 볼 수 없을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아동학회가 요트대학에 의뢰한 설문조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yahoo.com

월 믿음의 기도(마21:18-22)찬482장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비유를 통해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첫째,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21). 의심은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처럼 염려일락 그리고 재리의 욕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마음에서 의심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몰려올 수도 있고 오랜 습성을 통해 생깁니다. 둘째, 산을 향해 명하는 담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21). 주님은 산을 향해 달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구체적으로 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주의 뜻을 세우기 위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셋째, 무엇에나 믿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2). 무화과나무에 즉각적 명령으로 능력을 나타내신 주님은 무슨 일이든 주의 영광을 위해 믿음을 적용하기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십시오.

화 하늘에서 주신 권위(마21:23-32)찬21장

종교지도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남을 밝히기 위해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권위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첫째, 사람이 세운 권위는 무너집니다(24).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의 모든 인간적 권위는 언제나 하나님을 법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의 명철을 신뢰하는 권위는 모두 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세운 권위만이 영원합니다.

다(25). 예수님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 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 자신이 하나님 인양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 일하십니다(26-27).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심으로 완전한 권위를 이루시고 그 권위를 각계각층에 세우심으로 그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 권위를 겸손히 따라갑시다.

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마21:28-32)찬214장

또 다른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르치십니다. 첫째, 그 나라는 의식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28-29). 첫째아들 같은 바리새인들은 신실치 못해 도중하차해 결국 불순종함으로 하나님나라의 복을 상실했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진리의 노

선에 설 때 그 나라를 소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개하는 자가 소유합니다(30). 둘째아들에 속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땅이들에 속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까닭은 그들의 회개 때문입니다(31).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영광과 희락을 누리시는 성도가 됩시다.

목 산돌이신 그리스도(마21:33-46)찬542장

포도원 비유를 통해 또 다시 하나님나라의 은혜를 누릴 자를 가르치신 주님은 어떻게 그 열매를 누린다고 가르치십니까? 첫째, 주인의 뜻을 대적하는 자는 빼앗깁니다(40-41).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절해 아들까지 죽이는 그들은 자기의 외식과 탐욕에서 한 행동입니다. 둘째, 주님이 부르시는 자만이 누립니다(41). 주어진 특권을 멸시한 그들을 대신해 은혜로 부르신 자들을 세우셔서 자신

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셋째,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42). 그들이 죽인 아들이 하나님나라의 구원자가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 돌 위에 세워진 교회인 우리는 그 나라의 열매를 나타낼 자들입니다. 그 안에 굳게 섭시다.

금 택함받은 자의 특권(마22:1-14)찬502장

또 다른 비유로서 주님은 하나님나라의 은혜를 누릴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 나라는 어떤 심적을 가지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참여합니까? 첫째, 주님은 풍성한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2-4). "모든 것"은 풍성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놓인 구원은 죄 사함에서 시작해 그와의 동행함으로 그의 풍성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이한 은혜입니다. 둘째, 택함 받은 자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7-10). 유대인이 복음에 대한 초대를 거절한 이유는 그들이 택함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비하지 않은 자는 쫓겨납니다(11-14). 초청된 사람들도 예비하지 않은 자는 쫓겨났습니다. 아무런 참여해도 죄를 회개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나 거절한 자는 쫓겨납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의 특권을 누립니다.

토 세상 속의 하나님의 권위(마22:15-22)찬43장

주님은 공격하기위해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과 한통이 된 외식자들의 시험에 주님은 세상에서 권위로 일하는 하나님나라의 왕권이 어떻게 공존하는가를 세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첫째,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야 합니다(21).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라고 그 제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나라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21). 세상

에 속하지만 하나님나라는 분명한 구별을 가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 중 얼마를 구별해 하나님께 돌린 사실은 모든 것의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증표입니다. 속세를 떠나 살기를 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Kumran, Roman Catholic, and others.



살롬의 교육학(5)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교회교육이 나아갈 세 가지 방향성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이에 대한 반응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느낌이 든다. 끓는 물속의 있는 개구리가 물 안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그런 실험을 아는가? 서서히 일어나는 그러나 중요한 변화에 반응하지 않고 무능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흔히 끓는 물 안에 있는 개구리로 은유하여 말하곤 하지만, 요즘 교회가 개구리 처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필자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는 역동적이고 간절함이 있었으며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매력적인 장소였고 뭔가를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익힐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달려가는 그런 장소였고 언제나 거기에선 선생님들이 반겨주었고 늘 풍성한 먹거리가 있었다. 부모님들도 다른 곳에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으며 교회에 간다고 하면 선택 하라해 주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 첫 번째로 찾아오는 곳이 교회였고 거기서 아이를 발견한 부모님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느껴지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왜 그럴까? 교회가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전에는 교회에 가면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할 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학습하여 뭔가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는 희망을 보았는데 지금의 교회는 어떤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신뢰를 얻고 있는가? 교회는 바로 세상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관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밖에 존재하지만 세상 안에 열려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영생을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최악 된 세상에서 등불처럼 세상 교육이 주지 않는, 아니 세상 교육을 넘어서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전반적인 교회교육이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교회교육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왜 교회교육이 그리도 중요한가에 대해 설명하였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한다고 해도 교회교육의 목표가 바뀔 수는 없다. 교회교육의 목적은 우리 자녀가

어떤 세상에 산들,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몰리지 않은 주님의 제자로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점점 기독교 가치에 반하는 사회/문화 환경에서) 믿음의 가치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뜻뜻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어쩌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첫째, 교회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확장하

게 있음에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이들을 매일 교회에 오게 하는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방과후 학교, 홈위 스쿨, 그리고 교회에서 직접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까지 간구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매일 교회에 오게 하는 것.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아이들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줄 믿는다.

둘째는 교회학교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 프로그램 활동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매일교육체제로 전환, 교회전체 프로그램과 연계, 통합적 과정으로 운영
갈등의 시대 21세기 리더는 갈등조정, 화해, 중재, 이해/공감력이 필수

도록 하자. 흔히 지금은 정보화, 지식사회라고 말한다. 예전 산업화시대는 한 영역을 깊게 추구하는 전문형 인재가 필요하였지만, 지금은 모든 영역을 통합하는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과목과 영역에 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고 이를 아이들의 모든 영역 속에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교회교육이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예전 산업사회에서처럼 주중에는 일반교육을, 주말에는 성경공부 배우는 분리된 사고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위한 매일 교육의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주일하루(아니 한 시간동안) 예배와 성경공부만으로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른 키울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된 것도 그 이유가 되었다. 사회가 변하는데도 기독교 교육을 교회교육, 더 나아가 교회 주일학교 분반학습으로 축소시키고 여기서 만족하는데서 아이들의 영적 위기는 시작되었다. 예배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남짓의 시간동안 예배와 찬송, 그리고 성경공부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뼈대한 일정은 아이들을 바쁘게 움직이게는 하지만 정작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 효과를 내는데 부족한 현실이다. 마치 오히려 영양가 없는 많은 반찬이 식탁위에 놓여있지만 아이들이 식욕을 자극하지 않듯이 말이다. 그래서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확대 개편하여 토요학교, 한국학교, 혹은 영능학교 등의 명목으로 아이들을 주일 이외에 하루를 더 교회에 초대하면서 주어진 학과목을 가르칠 때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가르치려 하였다.

그러나 하루만을 더 한다는 것 역시 한



나아가야 한다. 2015년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의하면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내 성인/어른들 그룹과 연계가 없기 때문이고 어른들과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유대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11년 Powell과 Clark의 공저 "Sticky faith" 라는 책에서 저자들은 앞으로 교회가 세대 간 통합에 배 및 연계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교회의 부흥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한국에서도 몇몇 교회에서 세대 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 예를 들면 한 교회에서는 부모와 온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양육의 현장으로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부모와 자녀와 교사가 함께 만들고 함께 드리는 드림예

배(부모참여예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주중 목상자료집, 온교회 온세대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헌신하는 온가족예배 등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들의 믿음의 현장에 함께 함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심어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요즘 미국교회에서 인기 있는 성경교재 Orange Curriculum은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후에 반드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한 주간 함께 가정에서 체험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결국 교회의 부흥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적 체험을 해 가는 것이며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필자가 소속된 교회에서는 매년 5월과 8월을 부모와 자녀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달로 지키고 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매일 주제를 정하여 성경말씀과 함께 기도제목과 정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으며, 8월은 기독교 윤리 정착의 달로 정하고 한 달간 부모님들과 함께 독특한 과정

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교육을 포함하여 크리스천 리더십 및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즉 아이들에게 이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크리스천 리더십을 향상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책임과 헌신, 남을 위한 배려와 사랑, 그리고 겸손과 봉사의 의식을 양양시키는 리더십 교육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몇 년 전에 한국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 교육을 전담하시는 교회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그 교회 프로그램의 성공요소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이들에게 크리스천 리더십을 가르치고 이를 행동화시키도록 했다는 것이다. 기독교 리더십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이분은 가장 열악한 지역(예를 들면, 교도소, 혹은 빈곤 지역 등)을 방문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시켰고, 식사나 숙소도 가장 낮은 수준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장차 이런 환경을 크리스천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고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은 진정한 크리스천 가치가 생겨나더라고 그분은 이야기하셨다.

미국 메사추세츠와 뉴햄프셔에는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양질의 교육기관인 Philips Academy가 있다. Samuel Philip 설립자는 이 학교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에 근거하여 설립하였다고 한다. 이 학교의 건학이념은 none sivi(라틴어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not for self)라고 하는데 기독교 리더가 되기 위한 섬김과 배려, 헌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있다. 우리들도 이런 기독교 가치로 충만한 아이들을 양성해야 한다.

미래의 기독교 리더가 구비해야 될 시대정신

더불어 교회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할 가치로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필자가 볼 때, 20세기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는 산업화시대의 시대정신은 이성(reason)의 한계를 넘어선 심자가의 지혜와 능력(롬1:16)이었다. 그러나 21세기는 갈등의 시대이다. 기독교와 이슬람, 크리스천 세계관과 인본주의적 세계관,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 동양의 질적 특성과 서양의 양적 특성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시대이다. 더 나아가, 빈곤층 문제, 지역분쟁, 민족주의 갈등, 환경 문제, 자유훈고갈문제, 노인인구 와 산업인구, 양극화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리더에게 요구되는 21세기 시대정신은 세계 문제를 꿰뚫어보고 이를 해결하는 해안이며 이러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특정 영역의 지식, 전문 능력이 아니라 갈등조정능력, 화해 능력, 중재 능력, 이해/공감력(고전9:19-20)이다. 교회교육은 이러한 자질을 맞추는 교과과정 이 되어야 한다. 바로 교회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미래의 지도자가 양성되도록 해야 한다.

hlee0414@gmail.com
(계속)

대한민국 8.15 광복 71주년 기념 연합예배 결산보고

남가주에 산재한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8.15 광복 71주년 기념의 감동과 환희를 함께 누리며 기념 연합예배를 은혜롭게 마친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연합예배 결산을 보고 드립니다.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임원 일동

8.15 광복 71주년 기념 연합예배 결산 보고

수 입	금 액	지 출	금 액
그레이스 호스피스(최승호장로)	2,500	기념품가방(500개)	2,725
강신권 회장	1,000	공로패와 준비위 넥타이	290
정해진 목사	1,500	저녁식사(이조캐더링)	2,000
명성교회	200	순서지제작 (500권)	1,000
김재홍 목사	500	전단지(1000장)	40
강부웅목사	250	포스터(200장)	200
가주장의사	300	행사배너 제작(4개)	180
석정회시인	800	손태극기(500개)	250
김영배 목사	100	문구대	30
진유철 목사	200	행사준비비(청소비, 수고비)	300
유당열목사	100	준비위원회 모임(3차례)	250
서영석 장로	200	쌀 운반비	30
예배헌금	1,292	행사 준비	100
최형호 장로	300	목사장로 부부 합창단	500
목사회	500	한아름선교합창단	300
김광진 목사	200	당일 행사비(점심, 테일 등)	150
여성목사회	100	신론 광고비	3,350
재미게이트볼	100	김재홍 목사 캐시 아웃	600
한미정	100		
백지영 목사	100		
증경회장단 후원금	500		
임원 후원금	1,000		
김소연	200		
가방판매 70개	700	잔 액	447
	12,742		12,742

71주년 8.15광복절 행사 준비위원장 안기정 목사

제 46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임원

회장 : 강신권 목사

수석부회장 : 김재홍 목사

부회장 : 김관진 목사, 권순강 목사, 김영배 목사, 백지영 목사, 손태정 목사, 이상기 목사, 이정현 목사, 이춘준 목사, 정삼희 목사, 정종윤 목사, 정우성 목사, 조병국 목사, 조봉상 목사, 최명상 목사, 김선국 목사

총무 : 김영구 목사 부총무 : 김용호 목사

서기 : 한대명 목사 부서기 : 이철민 목사

회계 : 여호수아 지 목사 부회계 : 김성훈 목사

감사 : 피터 김, 홍만애

고문변호사 : 마동환, 김기현

공고

9월 임원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9월 19일(월) 오전 11:00
- 장소 : 교협 사무실

*임시 임원회 9월 9일(금)오전 11시 교협 사무실

회장 : 강신권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 (323)735-3000, (Fax) 323-735-3111